

UK

UK
KR

한국
영국
2017-18

KR

UK/Korea 2017-18
Creative Futures

후원

Sponsors



협찬

Supporters



2017-18 한영 상호교류의 해 Creative Future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영 상호교류의 해의 슬로건인 'Creative Futures'는 한국과 영국의 예술, 창의산업, 창의교육 분야의 성공적인 미래를 지향합니다.

2017-18 한영 상호교류의 해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새로운 작업을 시도하는 예술가와 관객 개발에 중점을 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역동적인 창의 경제에 필수적인 다섯가지 주제인 도시, 디지털 기술을 통한 변화와 혁신, 다양성과 통합, 창의기업가 정신, 창의교육으로 한영 상호교류의 해 프로그램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한영 상호교류의 해는 영국의 혁신성과 탁월함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한영 예술가와 예술기관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관객을 개발하고 경계를 뛰어넘는 창조적인 예술작업을 만들어 갑니다.

한영 상호교류의 해와 함께 동시대 영국을 비롯, 한국과 영국이 함께 만드는 내일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프라이어
주한영국문화원장

Welcome to UK/Korea 2017-18 Creative Futures

Creative Futures, the slogan for UK/Korea 2017-18, represents our aim to support successful futures for the arts, creative industries and creative education sectors in the UK and Korea.

From February 2017 to March 2018 UK/Korea 2017-18 presents a series of events and activities that place particular emphasis on emerging artists and reaching new audiences. We have chosen five themes which we feel vital to a dynamic creative economy. These are City-to-City, Transformation and Innovation through Digital Technology, Diversity and Inclusion, Creative Entrepreneurship and Creative Learning. Throughout the year we share the UK's innovation and excellence. We also develop creative practices by fostering new approaches and pushing boundaries through artistic collaborations between artists and arts organisations from both countries. Join us for what promises to be an exciting year!



Martin Fryer
Director Korea, British Council

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 한영 상호교류의 해 개막공연

▶ 일시 : 2017년 2월 20일 20.00 ▶ 장소 : 예술의전당 콘서트 홀 ▶ 장르 : 음악

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의 내한공연과 함께 2017-18 한영 상호교류의 해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영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관현악단으로 알려진 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는 광범위한 활동 영역과 높은 수준의 연주력을 겸비하고 있다. 현재 런던 바비칸에 상주하며 매년 80회 이상의 콘서트를 열고 있다. 이 내한공연에서는 다니엘 하딩(Daniel Harding)이 지휘를 맡고 작곡가 마크-앤서니 터니지(Mark-Anthony Turnage)의 트럼펫을 위한 협주곡 '호칸'을 국내에서는 최초로 선보이는 등 관현악이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소리를 관객에게 소개한다.

지휘자 다니엘 하딩

영국 옥스포드 태생인 다니엘 하딩은 버밍엄 심포니에서 1994년 데뷔했으며 베를린 필에서 아바도의 조수를 맡아 1996년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지휘자로 데뷔했다. 하딩은 사이먼 래틀 이후 영국 음악계가 전폭적으로 지원받는 지휘자이자 현대의 주류 음악 질서를 이끄는 청년 지휘자의 선두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다.

작곡가 마크-앤서니 터니지

마크-앤서니 터니지는 대영제국훈장(CBE)을 받은 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현대 클래식 작곡가 중 한 명이다. 고대 그리스 희곡 '오이디푸스 왕'을 1980년대 런던의 빈민가로 옮겨와 각색한 오페라 작품 '그리스인'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 주최 : 빈체로, 중앙일보

UK/Korea 2017-18 Opening Concert : London Symphony Orchestra

▶ Date and time : 20.00, 20 February 2017 ▶ Venue : Concert Hall, Music Hall, Seoul Arts Center ▶ Genre : Music

UK/Korea 2017-18 celebrates its grand opening with the London Symphony Orchestra, the UK's leading orchestra with a worldwide reputation. As a Resident Orchestra at the Barbican centre, LSO presents more than 80 concerts annually. In this tour, LSO Principal Guest Conductor Daniel Harding conducts the Korea premiere performance of Håkan, Mark-Anthony Turnage's second concerto for virtuoso trumpet player Håkan Hardenberger.

Daniel Harding, Conductor

Born in Oxford, Daniel Harding made his professional debut at the City of Birmingham Symphony Orchestra in 1994. He went on to assist Claudio Abbado at the Berliner Philharmoniker and made his debut with the orchestra in 1996, at his age of 21. Harding is widely regarded as one of the brightest of new generation of conductors since Sir Simon Rattle.

Mark-Anthony Turnage, Composer

Mark-Anthony Turnage CBE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composers of contemporary classical music. Turnage has established his worldwide reputation after his first opera *Greek*, a re-telling of Greek tragedy *Oedipus the King* with the setting changed to the slums of London in 80s.

▶ Hosted by : Vincero, Korea JoongAng Daily

02

제3차 한-영 창조산업포럼

▶ 일시: 2017년 2월 21일 ▶ 장소: 한국예술종합학교 ▶ 장르: 창조산업

2013년 11월 6일 양국 문화부간 체결된 문화창조산업 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한영 창조산업 분야의 정책 및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콘텐츠 소개 및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한영 창조산업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1차 포럼은 2014년 11월 서울에서, 2차 포럼은 2016년 3월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제2차 포럼에서는 영화, 방송, 패션, 공예, 예술 등 양국 협회/기관 간 5개의 업무 협약서가 체결되었고 지속적인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제3차 포럼에서는 게임, e스포츠, 음악, 창조기술(VR), 창조콘텐츠(스타트업, 출판) 분야의 분과 별 토론을 통해 양국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방안이 모색된다.

▶ 주최: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 영국 국제통상부 ▶ 주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주한영국대사관

The 3rd UK-ROK Creative Industries Forum

▶ Date and time : 21 February 2017 ▶ Venue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 Genre : Creative Industries

The UK-ROK Creative Industries Forum has been established as a legacy of MOU between the UK and Korea on co-operation in the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signed on 6 November 2013. Each year, representatives from the UK and Korea share outstanding policy examples to identify a joint agenda for the bilateral development of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The first forum was held in Seoul in November 2014, and the second meeting of the the forum took place in London in March 2016. At the second forum, five agreements have been signed for the co-operative ties in the fields of film, broadcasting, fashion, crafts and arts. This year's forum focuses on the topics of game, e-sports, music, VR, creative contents (start-ups, publication) and will identifies opportunities to build business partnerships.

▶ Hosted by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rea,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s,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
▶ Organised by :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British Embassy Seoul





Isaac Julien
ECLIPSE (Playtime), 2013
Endura Ultra Photograph
160 x 240 cm
Courtesy Isaac Julien and Victoria Miro Gallery, London

아이작 줄리언 : 플레이타임

▶ 일시: 2017년 2월 22일 - 4월 30일 ▶ 장소: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 장르: 시각예술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아이작 줄리언(Isaac Julien)의 본격적인 개인전 <아이작 줄리언: 플레이타임>을 개최한다. 이 개인전을 통해 작가는 글로벌 환경 하의 자본주의, 노동 그리고 미술시장과 같은 오늘의 현실이 회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제기한다.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이민과 디아스포라, 인종주의와 성적 소수자, 정체성 등을 다뤄 온 작가는 주요 작품 <Playtime>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적 모순과 한계를 목시론적 음색으로 그려낸다. 또한 이 전시는 <Playtime> (2014)과 한 쌍을 이루는 작품인 <Kapital> (2013)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역사의 트라우마를 과거와 현재, 삶과 죽음을 넘나들며 안무적으로 해석한 <The Leopard> (2007)로 구성된다.

아이작 줄리언

영화 작가이자 설치 미술가인 아이작 줄리언은 1960년 런던에서 출생하여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한다. 다채널 영상 설치와 사진 작업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시적이면서도 독특한 시각 언어를 창출하는 그의 1989년작 <Looking for Langston>는 작가 랭스턴 휴즈 및 뉴욕 흑인문화 재부흥을 뜻하는 할렘 르네상스를 조명한 다큐드라마로, 많은 추종자를 낳은 주요작이다. 또 1991년 장편영화 데뷔작 <Young Soul Rebels>로 칸 영화제에서 비평가주간상을 받았다. 아이작은 베니스 비엔날레에 2009년, 2015년 참여하였으며, 제7회 광주비엔날레 (2008), 제1회 뉴올리언즈 프로스펙트 트리엔날레 (2008), 제2회 뉴욕 퍼포마 비엔날레 (2007) 등의 전시에 참여하고 세계 각지 여러 명망 높은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 주최: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Isaac Julien : Playtime

▶ Date and time : 22 February – 30 April 2017 ▶ Venue : Platform-L Contemporary Art Center ▶ Genre : Visual arts

Platform-L Contemporary Art Center presents *Isaac Julien : Playtime*, the artist's first extensive solo exhibition in South Korea. Throughout the solo exhibition, Isaac examines inevitable and fundamental questions around capitalism, labour and art market of our time. His work engages with postcolonialism, migration and diaspora, racism and minor gender identities as thematic approach. In his major presentation of *Playtime* at the Platform-L, the intrinsic contradiction and limits of capitalism is depicted in an apocalyptic tone. The exhibition consists of three works including *Playtime* (2014) functioning as the major axis to the constellation paired to *Kapital* (2013) and finally *The Leopard* (2007) that renders historic traumas into a choreography playing on the border of life and death.

▶ Hosted by : Platform-L Contemporary Art Center

오페라 <골든 드래곤>

▶ 일시 : 2017년 3월 31일 22.00 / 2017년 4월 1일 19.30 / 2017년 4월 2일 17.00

▶ 장소 : 통영국제음악당 블랙박스 ▶ 장르 : 음악, 공연예술

영국 웨일스를 대표하는 뮤직 시어터 웨일스의 신작 오페라 <골든 드래곤>의 아시아 초연이 통영에서 열린다. <골든 드래곤>은 아시아 레스토랑을 배경으로 유럽에 불법 이주한 중국인 남매가 삶을 헤쳐가는 내용을 그린 작품이다. 현대 영국, 나아가 세계가 마주한 동시대의 이슈를 때로는 코믹하게, 때로는 비극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은 오페라의 매력적인 음악과 흡입력 있는 연극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조합하여 관객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먼 집을 떠나 누나를 찾으러 온 남자 아이는 어느 아시아 레스토랑 부엌에서 일하고 있다. 심한 치통을 앓고 있지만 불법체류자라서 치과를 가지 못하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게 되고, 이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데...

뮤직시어터웨일스는 컨템포러리 오페라 컴퍼니로 1988년 창립되어 지난 26년간 새로운 오페라를 선보이고 있는 오페라단이다. 소규모 신작 오페라 공연을 중점으로 현존 작곡가의 새로운 작품 또는 새로운 무대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는 작품 등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2015년에 통영국제음악제에서 <그리스인> 아시아 초연을 가진 바 있다.

▶ 주최 : 통영국제음악제

Opera The Golden Dragon

▶ Date and time : 22.00, 31 March 2017 / 19.30, 1 April 2017 / 17.00, 2 April 2017

▶ Venue : Black Box, Tongyeong Concert Hall ▶ Genre : Music, Performing Arts

Following its success with *Greek* in 2015, Music Theatre Wales returns to Tongyeo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TIMG) with another thrilling new opera, *The Golden Dragon* brought to life with their characteristic theatrical flair and musical virtuosity. Set in a Pan-Asian restaurant found in any city anywhere, *The Golden Dragon* is a compelling fable of modern life – funny, shocking and touching in equal measure.

Migration, exploitation, hopes and lost dreams are all here. At the heart of this East-meets-West tale, is the discovery of a decayed tooth in a bowl of soup. It belongs to a kitchen boy, a long way from home and with no papers. He's also looking for his sister, but she's been forced into a very different kind of service just next door...

Music Theatre Wales (MTW) is a national contemporary opera company, dedicated to bringing innovative contemporary opera to the public for 26 years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88. MTW performs newly commissioned works or existing pieces which haven't been showcased in the UK or have been neglected. MTW had its first premiere in Asia with *Greek* in 2015 at TIMG.

▶ Hosted by : Tongyeo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05

2017 올리브 페스티벌 <여왕의 피크닉>

▶ 일시 : 2017년 4월 22일 12.00 / 4월 23일 16.00 ▶ 장소 : 올림픽공원 88 잔디마당 ▶ 장르 : 푸드

런던 제이미스 이탈리아(Jamie's Italian)에서 요리사로 근무했던 황소영 셰프는 2017 뮤직인더시티 올리브 페스티벌에서 <여왕의 피크닉>을 진행한다. 주한영국문화원은 행사를 통해 한국인들의 일상에 영국 음식이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를 희망하고 이를 위해 CJ E&M과 주한영국대사관과 협력한다.

아름다운 올림픽공원 잔디마당에서 펼쳐지는 쿠킹쇼에서 황소영 셰프는 1953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에 선보인 코로네이션 치킨을 시연한다. 코로네이션 치킨에 얽힌 역사와 더불어 영국 음식에 담긴 여러 이야기를 함께 풀어낸다. 수 키노시타(Sue Kinoshita) 주한영국부대사와 마틴 프라이어(Martin Fryer) 주한영국문화원장은 조수로 참여하여 각자가 가진 음식에 대한 사연을 들려준다. 또한 코로네이션 샐러드와 핫크로스 번도 쿠킹쇼에서 시연하여 영국의 맛을 서울 한복판으로 옮겨 놓는다.

참여한 관중은 코로네이션 치킨과 로즈티를 함께 시식할 수 있다.

Food is GREAT Campaign – Queen's Picnic

▶ Date and time : 12.00, 22 April / 16.00, 23 April ▶ Venue : Olympics Park ▶ Genre : Food

Soyoung Hwang, a Korean chef who worked at Jamie's Italian in London, presents a cooking show titled 'Queen's Picnic' as part of the 2017 Music-in-City Olive Festival. In partnership with CJ E&M and British Embassy Seoul, we bring British food culture closer to the daily life of young audiences in Korea.

During the show at the Olympics Park, Chef Hwang demonstrates how to make a coronation chicken sandwich, which was served at the coronation of Queen Elizabeth II in 1953 and shares food stories that tell the history of the United Kingdom. Sue Kinoshita, Deputy Head of Mission at the British Embassy Seoul and Martin Fryer, Director Korea, British Council, assist the chef adding their own stories to the food.

Coronation chicken sandwiches are served to the audience in attendance at the park along with rose tea. Coronation salad and hot cross buns are also presented at the show and bring a flavour of British food to central Seoul.





Installation view of 'Factory' by Neil Brownsword © 2017 GICB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영국 포커스

▶ 일시: 2017년 4월 22일 - 5월 28일 ▶ 장소: 경기도 이천 세라피아 ▶ 장르: 시각예술, 공예

경기도 이천, 여주, 광주에서 열린 2017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도자를 통해 동시대 사회와 문화, 개인과 집단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대중과 나눈다. <서사_삶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전시, 학술 및 교육, 워크숍,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올해는 특히 영국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행사를 선보인다.

2015년 국제공모전 대상작가의 특별초청전 <닐 브라운스워드: 팩토리>에서는 영국 북부 스태포드셔 지방의 페 도자기와 함께 영국 도자기공장 장인들의 라이브 퍼포먼스, 다큐멘터리 영상 등을 통하여 과거 300년 가까이 지역경제를 지탱했던 무형 문화유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현실을 이야기한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산업의 변화 이후 남겨진 것들을 재구성하여, 인간의 노동 과정에서 세대를 거쳐 전수된 전문 지식들의 진정한 가치를 상기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를 보존할 수 있는지 고민하도록 질문을 던진다. 더불어 한국도자재단 소장품전 <티웨어_영국의 오후를 담다>에서는 세계적인 명품 도자기 기업으로 손꼽히는 영국 도자 브랜드(웨이우드, 로알 딜튼, 앤슬리 등)의 티웨어, 테이블웨어와 함께 영국의 애프터눈티 문화를 소개한다. 워크숍 <멘토링캠프>, <리서치캠프>에서는 영국 스태포드셔와 한국 이천이 가진 공통적인 장소 특성을 기반으로 영국과 한국 도자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가로지르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 주최: 경기도 ▶ 주관: 한국도자재단

Gyeonggi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Neil Brownsword's Factory

▶ Date and time : 22 April - 28 May 2017 ▶ Venue : Icheon Cerapia ▶ Genre : Visual Arts, Craft

Held simultaneously in the three cities of Icheon, Yeosu and Gwangju in Gyeonggi-do, Gyeonggi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2017 (GICB) features a diverse programme including exhibitions, symposiums and workshops. Under the title of *Narrative_Ode to Life*, GICB presents a wide range of ceramic works to narrate our lives.

British artist Neil Brownsword has a dedicated hall within GICB, where he presents the exhibition 'Factory', shedding light on the displacemen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orth Staffordshire's ceramics industry. It invites viewers to ask questions about the value and relevance of inter-generational skills with a view to raising awareness of increasingly threatened cultural heritage that has supported a local economy for nearly 300 years.

Meanwhile, Korea Ceramic Foundation Collection presents teaware from world famous British ceramic brands - Wedgwood, Royal Doulton and Aynsley - to introduce the afternoon tea culture of the UK. Workshops for interlocal projects connecting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ceramic industry of Staffordshire and Icheon also take place. "UK Culture Day" in May presents various exhibitions, workshops and collateral events that represent the UK's literature, tea culture, ceramics and performing arts.

▶ Hosted by : Gyeonggi-do ▶ Organised by : Korea Ceramic Foundation

전주국제영화제 스페셜 포커스 - 마이클 윈터바텀 특별전

▶ 일시 : 2017년 4월 27일 - 5월 6일 ▶ 장소 : 전주시 고사동 영화의 거리 일대 ▶ 장르 : 영화

마이클 윈터바텀 특별전은 90년대 이후 영국을 대표하는 감독인 윈터바텀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면서 다양한 영화 영역을 넘나드는 동시대 감독이자 작가를 주목한다. 극영화 감독으로 시작된 마이클 윈터바텀 감독은 2000년대 선보인 <인 디스 월드 (In This World), 2002>를 통해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다큐와 극영화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허물어 왔다. 최근 BBC와 함께 TV영화로 제작한 '더 트립' 시리즈는 영국과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을 넘나들면서 유럽에 있는 영국 문호들(셸리, 키츠)의 흔적과 교류사를, 그리고 유럽의 고유한 문화와 음식을 보여주면서 역사와 현실의 만남을 표현하고 있다.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마이클 윈터바텀을 재조명한 '스페셜 포커스: 마이클 윈터바텀, 경계를 가로지르는 영화작가'를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윈터바텀 감독의 대표작 상영을 통해 윈터바텀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고, 연계 행사로 진행되는 마스터 클래스는 관객들에게 감독과의 밀도 있는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이는 단순히 한 감독에 대한 조명이 아니라 유럽의 현재에 대한 1900년대 이후의 시선을 조망하는 것이며, 동시대 영화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깊은 통찰을 제시한다.

▶ 주최 : (재)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 주관 :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

The 18th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Special Focus: Michael Winterbottom

▶ Date and time : 27 April – 6 May 2017 ▶ Venue : Cinema Street, Gosa-dong, Jeonju ▶ Genre : Film

This year's Special Focus explores the past and present of Michael Winterbottom, one of Britain's most prominent film directors since the 1990s. After making his directorial debut with a feature film, he began blurring the boundaries between documentaries and features in his 2002 film *In This World*. With this road-movie style film, Winterbottom proved himself to be capable of confronting reality, rather than simply a storyteller.

Winterbottom began his career producing films for TV. His more recent 'The Trip to' series produced for the BBC follows the route of great English writers (Percy Bysshe Shelley and John Keats) in England, Italy and Spain and presents the unique culture and culinary traditions of each country, blending history with contemporary reality.

Having directed over 40 films, Winterbottom is undoubtedly a passionate and prolific filmmaker. The 2017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creens selected works of Winterbottom and the programme includes a master class with the director, aiming to offer a new perspective on Europe's present and consider where contemporary cinema is headed.

▶ Hosted by :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 Organised by :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Image courtesy of Michael Winterbottom

08



Photo by Ray Kane

전주 영국주간

▶ 일시: 2017년 5월 10-14일 ▶ 장소: 전주시 일대 ▶ 장르: 시각예술, 공연예술, 음악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영화, 전시, 공연 등 다양한 영국문화예술을 소개하는 '영국주간'을 선보인다

아크로주가 선보이는 컨템포러리 서커스 <휠 하우스(The Wheel House)> 공연, 세계의 주요 랜드마크에 종이예술을 접목하는 사진예술가 리치 맥코어의 개인전 및 관객 참여형 워크숍을 통해 관객들은 더욱 풍성하게 전주를 즐길 수 있다. 여명카메라박물관에서는 영국의 여류작가 제인 오스틴의 작품이 원작이 된 영화 <레이디 수잔>을 상영하고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무비토크 '영화로 만나는 제인 오스틴' 행사가 마련된다. 또한 풍남문 광장에서는 색소폰과 기타, 드럼으로 이루어진 영국의 재즈락 밴드 롤러 트리오와 힙합섹스피어 컴퍼니 소속 신예 보컬 시미언 달라스가 선보이는 야외 콘서트가 진행된다.

▶ 주최: 전주시

Jeonju UK Week

▶ Date and time : 10-14 May 2017 ▶ Venue : Jeonju ▶ Genre : Visual Arts, Performing Arts, Music

The city of Jeonju presents Jeonju UK Week to introduce and celebrate UK arts and culture through film screenings, exhibitions and performances around Hanok Village.

The showcase includes contemporary circus *The Wheel House* by Acrojou; an exhibition and workshop by Rich McCor, a renowned paper artist who transforms photos with paper cut-outs; a film screening with a special talk on 'Meet Jane Austen' alongside the recent film *Lady Susan*; and an outdoor concert by Roller Trio, a collaborative British Jazz-Rock band and Simeon Dallas from Hip-Hop Shakespeare Company.

▶ Hosted by : The City of Jeonju

09



'Ye Gods'
by Whalley Range All Stars
© 2017 Ansan Street Arts Festival

안산국제거리극축제

▶ 일시: 2017년 5월 5-7일 ▶ 장소: 안산문화광장 ▶ 장르: 공연예술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영국 스톡톤의 대표적인 축제인 스톡톤 국제 강변축제(Stockton International Riverside Festival)와 아티스트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산업을 기반으로 발달한 계획도시 중심에서 진행된다는 공통점을 가진 두 축제 간의 협업은 양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더욱 활발히 교류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상상력이 돋보이는 시각예술에 공연을 접목시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왈리 레인지 올 스타즈(Whalley Range All Stars)의 <Ye Gods>, 전 세계의 젊은 무용수들에게 영감을 주는 독창적인 공연으로 유명한 컴퍼니 카멜레온(Company Chameleon)의 <Push>와 <Hands Down> 등 쉽게 볼 수 없는 영국만의 특별한 거리예술 공연이 펼쳐진다.

▶ 주최: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 주관: 안산문화재단

Ansan Street Arts Festival

▶ Date and time : 5-7 May 2017 ▶ Venue : Ansan Cultural Square ▶ Genre : Performing arts

Ansan Street Arts Festival develops an artist exchange programme in partnership with Stockton International Riverside Festival. Both communities have a strong industrial history and both festivals take place in designated areas in the city centres. This new partnership is expected to yield collaborative works at both festivals in 2018.

This year two UK artist groups are invited to perform. Whalley Range All Stars showcases its theatrical and visually attractive *Ye Gods* for their first time in Asia. Company Chameleon presents two inspiring pieces each called *Push* and *Hands Down*, which both explore body's movement and emotion through dance.

▶ Hosted by : Ansan City, Ansan Cultural Foundation ▶ Organised by : Ansan Cultural Foundation

10

2017 페임랩코리아

▶ 일시: 2017년 5월 11일 ▶ 장소: 서울 광화문 KT 스퀘어 ▶ 장르: 과학

영국문화원은 과학기술 관련분야(과학, 공학, 의학학, 수학 등)의 젊은 연구자와 교육자들이 대중과 창의적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주고,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기 위해 페임랩(FameLab - Talking Science)을 진행한다.

2005년 영국 첼튼엄 페스티벌에서 시작한 페임랩은 2007년 영국문화원과 협력해 바탕으로 국제 대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전 세계 49개국이 참여해왔으며 페임랩 참가자들은 이 대회를 통해 약 5,500여 명의 전 세계 페임랩 출신 과학자와 교류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세계 최대의 과학커뮤니케이션 경연대회다.

주한영국문화원은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한국과학창의재단과의 파트너십으로 페임랩을 국내에 처음 소개했다. 페임랩코리아는 1차 및 2차 심사를 통해 국내결선 진출자를 선발하고, 선발된 진출자는 결선대회 이전 영국에서 초빙된 전문 과학커뮤니케이터와 함께 대중과학 소통 스킬을 강화하는 훈련을 받는다. 서울에서 개최되는 페임랩코리아 결선대회에서 수상하는 최종 1인은 6월 영국 첼튼엄 과학페스티벌 기간에 개최되는 페임랩 국제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한다.

▶ 주최: 미래창조과학부, 첼튼엄페스티벌 ▶ 주관: 한국과학창의재단

FameLab Korea 2017

▶ Date and time : 11 May 2017 ▶ Venue : Seoul Gwanghwamun KT Square
▶ Genre : Science

FameLab is an international training programme designed to inspire, motivate and develop young scientists and engineers to actively engage with the public and stakeholders. FameLab works in a competition format to engage large audiences globally. Participants have just three minutes to win over the judges and crowd with a scientific talk, judged on content, clarity and charisma.

As part of the programme, selected participants receive training from expert UK trainers in an exclusive two-day intensive masterclass. Originally started in the UK in 2005 by Cheltenham Festivals, since 2007 competitions have been run around the globe thanks to the British Council and local partners. In 2014 FameLab launched in Korea in partnership with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nd Korea Foundation of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

The national final of FameLab Korea 2017 takes place in May and the final winner goes onto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which is held during Cheltenham Science Festival in the UK to represent Korea.

▶ Hosted by :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Cheltenham Festival
▶ Organised by : Korea Foundation of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





The Wheel House by Acrojou © Steve Edwin Photography 2015

의정부음악극축제

- ▶ 일시 : 2017년 5월 13일 15.00, 18.30 / 5월 14일 16.00, 19.00 ▶ 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 장르 : 공연예술

의정부음악극축제는 2002년 시작된 이래로, 매년 5월 국내외 우수 단체의 실내극 및 거리극 등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음악극을 선보이며 국내 대표 공연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16회를 맞이하여 <Fantasy : 꿈꾸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극들과 야외공연 및 체험전시가 구성되어 의정부시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축제에서는 영국의 서커스극단 아크로주의 작품 <휠 하우스>가 소개된다.

아크로주(Acrojou)

2006년 런던의 국립서커스 센터를 기반으로 예술감독인 제니 바날드(Jeni Barnard),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퍼포머인 바니 화이트(Barney White), 기술감독 리차드 모우브레이(Richard Mowbray)의 협력으로 창단되었다. 아크로주는 아크로바틱과 연극적 요소를 결합한 컨템포러리 서커스 작품을 제작해 오고 있다. 진정성을 가지고 관객들에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미션과 함께 공공장소에서 모든 연령대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진 관객과 소통하는 공연제작에 집중한다.

휠 하우스(Wheel House)

집의 형태를 갖춘 지름 2m 원형의 세트를 두 명의 공연자가 서로 받치고 굴리며 이동해 나가고 관객들도 함께 이동하며 그 여정을 함께한다. 계속해서 물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한 쌍의 철새를 떠올리게 하는 두 공연자의 생존을 위한 고군분투를 통해 애정어리고 포스트 종말론적인 사랑 이야기를 전달한다.

- ▶ 주최 : (주)의정부예술의전당 ▶ 주관 : 의정부음악극축제집행위원회

Uijeongbu Music Theatre Festival

- ▶ Date and time : 15.00, 18.30, 13 May / 16.00, 19.00, 14 May 2017 ▶ Venue : Uijeongbu Arts Centre
▶ Genre : Performing Arts

Held every May in Uijeongbu since 2002, Uijeongbu Music Theatre Festival (UMTF) introduces various music theatres from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vels. For its 16th anniversary, UMTF has chosen 'Fantasy' as its theme and presents a boisterous sight with various experiences, exhibitions and outdoor performances that everyone can enjoy. For the UK presence, a physical theatre company Acrojou is invited to perform its stunningly inventive piece called *The Wheel House*.

Acrojou

Led by Artistic Director Jeni Barbard, Acrojou is a collaboration between Jeni (designer/director), Creative Director Barney White (devisor/performer), and Technical Director Richard Mowbray (designer/engineer). The company was founded in 2006 at the National Centre for Circus Arts, London. Drawing on backgrounds in circus, visual arts, theatre, dance and engineering, Acrojou combines disciplines to create a narrative at the rich meeting point of bodies, structures and materials. They work in a non-verbal way, telling human stories through physicality and visual design, making it suitable for people of all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The Wheel House

A tender, post-apocalyptic story, *The Wheel House* is a unique, rolling acrobatic theatre show which unfolds inside and around a stunning circular home as it travels with the audience walking alongside.

- ▶ Hosted by : Uijeongbu Arts Center ▶ Organised by : Uijeongbu Music Theatre Festival

2017 국제현대무용제 개막작 - 발레보이즈 <Life>

- ▶ 일시: 2017년 5월 18-19일 19.30 ▶ 장소: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
▶ 장르: 공연예술

올해로 제36회를 맞이하는 한국 대표 무용 축제인 국제현대무용제는 영국 현대무용단 발레보이즈(BalletBoyz)를 초청, <Life> 공연으로 축제의 막을 올린다. 처음으로 방한한 발레보이즈는 남성 신체의 아름다운 근육미와 절제된 힘을 보여주는 <Rabbit>과 <Fiction>의 두 작품을 구성하여 영국 정통 현대무용의 정수를 보여준다.

열 명의 뛰어난 남성 무용수들로 구성된 발레보이즈는 로열발레단(The Royal Ballet)의 주요 무용수로 활동한 마이클 넌(Michael Nunn)과 윌리엄 트레빗(William Trevitt)이 2000년에 설립하여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작곡가, 예술가, 디자이너, 필름메이커, 사진가 등 다양한 영역의 예술가들과 협업하며 독창적인 단체로 성장해온 영국의 대표적인 무용단이다. TV 출연 등을 통해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며 올리비에 어워드, 사우스뱅크쇼 어워드에 두 차례 후보에 오르며 영국의 대표적인 무용단 중 하나로 거듭났다.

- ▶ 주최: 한국현대무용협회 ▶ 주관: 국제현대무용제

BalletBoyz's Life

- ▶ Date and time : 19.30, 18-19 May 2017 ▶ Venue : ARKO Arts Theatre
▶ Genre : Performing Arts

The 36th Modern Dance Festival (MODAFE) presents *Life* by BalletBoyz, a leading UK dance company, visiting Korea for the first time, as the opening show. *Life* consists of 'Rabbit' by Pontus Lidberg and 'Fiction' by Javier de Frutos and shows muscular beauty and moderate strength of the male body.

BalletBoyz, with ten amazing male dancers, was founded in 2000 by Michael Nunn and William Trevitt who were the main dancers of the Royal Ballet. It has grown into a unique organisation with more than 17 years of experience in partnership with a variety of composers, artists, designers, filmmakers and photographers.

- ▶ Hosted by : Contemporary Dance Association of Korea ▶ Organised by : Modern Dance Festival



Bradley Waller in BalletBoyz Life
(Rabbit) Credit Tristram Kenton

13

한영 창의교육 전문가 방문교류 및 라운드테이블

▶ 일시: 2017년 5월 22-26일 ▶ 장소: 서울 ▶ 장르: 예술, 교육

주한영문화원은 왕립예술협회 (Royal Society of Arts),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문화예술 교육'을 주제로 교환 방문을 통한 양국 전문가 교류 사업을 시행하고 출간물을 발간한다.

2017년 5월에는 일곱 명의 영국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국 전문가들과 함께 주제별 토론회를 펼치는 워크숍 및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고, 학교와 미술관 등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이 분야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한다.

2017년 11월에는 다섯 명의 한국 전문가들이 영국을 방문하여 영국의 문화예술 교육 현장을 탐방하며 정책입안자, 교육전문가, 실행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양국 정책 및 현황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협력을 모색한다.

▶ 주최: 왕립예술협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British Council



© British Council

UK-Korea Creative Education: Research and Roundtable

▶ Date and time : 22-26 May 2017 ▶ Venue : Seoul ▶ Genre : Arts, Education

In partnership with the Royal Society of Arts (RSA) and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KACES), we have organised an exchange programme in creative education. The programme consists of two reciprocal research visits to Korea and the UK, in May and November 2017 respectively, by policymakers, educationalists and practitioners.

The programme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reative education in both countries by sharing experience and expertise, and to promote exchange and collaboration in this area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focuses on three themes: partnership, teacher and learner identity and evaluation. The research reports are published in the UK and Korea separately.

▶ Hosted by : Royal Society of Arts,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14

웨이 맥그리거 안무 <아토모스>

▶ 일시 : 2017년 5월 26일 20.00 / 2017년 5월 27일 17.00 ▶ 장소 : LG아트센터 ▶ 장르 : 공연예술

몸을 통해 사유하며 과학과 첨단 테크놀로지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끝없이 실험적이고 진보적인 예술세계를 개척해온 영국의 대표 안무가 웨인 맥그리거(Wayne McGregor)가 12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는다. 그는 1992년 창당한 랜덤 댄스 컴퍼니를 자신의 이름을 딴 명칭으로 바꾸어 이끌어 가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영국 로열 발레단의 상주안무가로 활동하면서 파리 오페라 발레, 볼쇼이 발레, 뉴욕 시티 발레, NDT 등 세계 최고의 발레단과 무용단과 작품들을 만들어왔다. 또한, 영화 <해리 포터와 불의 잔>, <레전드 오브 타잔>, <신비한 동물사전>의 움직임 연출하고, 세계적인 록 밴드 '라디오헤드'와 일렉트로닉 뮤지션 '케미컬 브라더스'의 뮤직 비디오를 안무하기도 하는 등 장르를 불문하고 자신만의 혁신적인 창조력을 발휘해왔다. 특히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웨이 맥그리거 스튜디오'에서 무용 뿐 아니라 음악, 영화, 비주얼 아트, 테크놀로지 등에 걸쳐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함께 총체적인 작업을 진행하며 영국 현대 예술계의 크리에이티브 엔진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가 한국에서 선보이는 <아토모스(Atomos)> (2013)는 그의 예술성이 가장 잘 담긴 대표작 중 하나로 3D 안경을 쓰고 감상하는 작품이다. 이를 위해 앰비언트 뮤직의 대표적인 아티스트인 '무뚝뚝함을 위한 송고한 승리(A Winged Victory for the Sullen)'가 음악을 맡고, 패션과 기술이 결합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를 선도하는 영국의 '스튜디오 XO(Studio XO)'가 각 무용수들의 생체정보를 반영하여 의상을 디자인했다. 마치 원자(atom)처럼 섬세하고 유려한 무용수들의 움직임에 어우러진 영상과 조명은 무대 위에 총체적인 아름다움을 빛내며 관객들에게 공감각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무용과 음악, 과학과 철학을 최첨단의 감각으로 융합시켜 이뤄낸 21세기적인 예술을 <아토모스>를 통해 만날 수 있다.

▶ 주최 : LG아트센터

Atomos by Company Wayne McGregor

▶ Date and time : 20.00, 26 May 2017 / 17.00, 27 May 2017 ▶ Venue : LG Arts Center ▶ Genre : Performing arts

"If any artist has defined the decade, it's Wayne McGregor." - The Times

Atomising bodies, movement, film, sound and light into miniature shards of intense sensation, *Atomos* is a work created by the multi-award-winning British choreographer, Wayne McGregor. Internationally renowned for his unique, tenacious questioning across the interface of art and science and through the body and mind, McGregor has remained at the forefront of contemporary arts for the past twenty years. Imagining the indivisible order created through uncuttable structures and interwoven with an architectural manipulation of bodies, the choreography of *Atomos* grows from the form of the atom. Aided by computer programmes, innovative lighting designs, 3D projections and ultra-modern sounds, McGregor creates images of superb beauty and finesse. A vision of future worlds is presented through this unique dance piece.

▶ Hosted by : LG Arts Center



탈리스 스콜라스

- ▶ 일시 : 서울 2017년 5월 31일 20.00 / 대구 2017년 6월 1일 20.00
- ▶ 장소 : 서울 LG아트센터 / 대구 수성아트피아 ▶ 장르 : 음악

1970년대 초 창단되어 르네상스 시대 음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소개하면서 영국을 대표함은 물론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성악단체로 인정받고 있는 11인조(지휘자이자 창단자인 피터 필립스 포함) 아카펠라 보컬 앙상블인 "탈리스 스콜라스(The Tallis Scholars)"를 초청하여 국내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영국과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숨은 진주 같은 종교 성악곡을 국내 관객이 직접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탈리스 스콜라스의 서울 공연은 2004년 이후 13년 만에 이루어진다. 이 공연에서는 영국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단체명의 유래인 '토마스 탈리스'의 미사곡이 연주된다.

탈리스 스콜라스

영국 BBC가 "영국의 가장 위대한 음악 수출품의 하나"로 평한 바 있는 르네상스 성악곡의 대표주자인 탈리스 스콜라스는 정확한 음조율과 순수하고 청명한 사운드를 바탕으로 실타래처럼 얽힌 르네상스 다성음악의 모든 디테일이 찬란하게 살아나도록 명쾌하게 풀어내는 연주로 명성이 높다. 1973년 창단 이후 이들은 지금까지 그라모폰상 "올해의 음반"(1987년)을 비롯한 3회의 베스트 고음악 음반상, 2개의 "올해의 황금디아파종" 선정, 일본 음반협회 고음악상, 그리고 관객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그라모폰자의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리는 등 꾸준하게 진행하는 견실한 연구와 크게 바뀌지 않는 단원들로 인해 오랜 시간 높은 퀄리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특히 1987년 조스캥의 미사곡 음반으로 받은 그라모폰상 최고의 영예인 "올해의 음반"은 고음악으로는 처음으로 수상하였다. 영국의 합창전통을 이어가는 이들의 선구자적인 연구와 연주 활동은 이후 탄생한 많은 보컬 앙상블에 귀감이 되고 있다.

- ▶ 주최 : LG아트센터 (서울), 수성아트피아 (대구)

The Tallis Scholars

- ▶ Date and time : 20.00, 31 May 2017 (Seoul) / 20.00, 1 June 2017 (Daegu)
- ▶ Venue : LG Arts Center (Seoul) / Suseong Artpia (Daegu) ▶ Genre : Music

This concert presents The Tallis Scholars, a world-renowned vocal ensemble from the UK, who is specialised in vocal music from the Renaissance era. Founded by Peter Philips in 1973, the Tallis Scholars has explored and studied undiscovered 'musical pearls' from the Renaissance period and successfully presented it with their impeccable vocal technique and sincere musicianship. The concerts in Seoul and Daegu give the Korean audiences a rare opportunity to appreciate English and Italian renaissance vocal music including a mass by Thomas Tallis, signature figure of the English Renaissance as well as the origin of the name of the Tallis Scholars. Particularly, the Tallis Scholar's Seoul concert takes place in 13 years since their last visit to Seoul in 2004.

Acclaimed as one of the UK's greatest cultural exports (BBC Radio), the Tallis Scholars have maintained a reputation as one of the greatest a cappella organisations in the world. They are particularly noted for their illumination of the complex web of independent melodic lines that is characteristic of the Renaissance music, which in less capable hands can lose its musical cohesion and direction. Since its inception in early 1970s, the Tallis Scholars has garnered a number of accolades including the 1987 "Record of the Year" award from Gramophone Magazine and two Diapason d'Or de L'Année awards. Other awards include two more Gramophone Awards for "Best Early Music" recordings (1991 and 1994) and a Gramophone/Classic FM People's Choice Award. The Tallis Scholars' pioneering work both in the study and in the performing, also recognised as the Gramophone's *Hall of Fame*, remains a good model for many vocal ensembles to have emerged to date.

- ▶ Hosted by : LG Arts Center (Seoul), Suseong Artpia (Daegu)

제19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페미니스트 필름 클래식> 강연과 토크

- ▶ 일시 : 2017년 6월 6일 14.00 ▶ 장소 : 연세대학교 MINT 상영관 ▶ 장르 : 영화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세계 여성영화 산업을 주도하고 여성영화인 네트워크를 확립하기 위한 세계 최대의 여성 영화제이다. 올해에는 다양한 상영 프로그램과 더불어 세계 영화사를 다시 쓴 페미니스트 영화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페미니스트 필름 클래식> 특별회고전을 개최하고, 그 부대행사로 영국의 페미니스트 필름 액티비스트이자 <Political Animals: The New Feminist Cinema>와 <The Cinema of Sally Potter: A politics of Love>의 저자인 소피 마이어를 초청한 강연과 토크 행사도 진행된다. 소피 마이어는 '무언가 다른 것: 어떻게 페미니스트 감독들은 영화와 세계를 변화시켰나'라는 주제로 영화와 페미니즘이 교차하는 역사 및 1970년대 초 영국에서 시작된 페미니스트 영화 운동에 대한 관객의 이해를 돕는다. 강연 이후에는 SF 페미니스트 영화 <불꽃 속에 태어나서>의 감독 리지 보덴과 독일 최초의 페미니스트 영화 <아홉 번의 삶을 사는 고양이>의 감독 올라 슈퇴클과 함께 한 토크도 함께 진행한다.

- ▶ 주최 : 서울국제여성영화제

The 19th SEOUL International Women's Film Festival <Feminist Film Classics> Lecture and Talk

- ▶ Date and time : 14.00, 6 June 2017 ▶ Venue : MINT Theater, Yonsei University ▶ Genre : Film

The 19th SEOUL International Women's Film Festival (SIWFF) presents *Feminist Film Classics*. A special retrospective discovering and introducing nine feminist films which rewrote the history of world cinema. As part of the programme, SIWFF holds a special lecture 'Something Different: How feminist filmmakers changed cinema - and the world' by Dr Sophie Mayer. Dr Mayer is a British feminist film activist and the author of *Political Animals: The New Feminist Cinema* and *The Cinema of Sally Potter: A Politics of Love*. Her lecture discusses the feminist film movement starting in the early 1970s in the UK as well as the history which cinema has been intersected with feminism. The lecture is followed by a talk with Lizzie Borden, director of the sci-fi feminist film *Born in Flames* and Ula Stöckl, director of Germany's first feminist film, *The Cat Has Nine Lives*.

- ▶ Hosted by : Seoul International Women's Film Festival



Opera Norma (V. Bellini)
© Royal Opera House



Opera Cosi Fan Tutte (A. Mozart)
© Royal Opera House



Ballet The Sleeping Beauty (Music by Tchikovsky)
© Royal Opera House



Opera Madama Butterfly (G. Puccini)
© Royal Opera House



Opera Otello (G. Verdi)
© Royal Opera House

오페라 인 시네마 2017 시즌

▶ 일시: 2017년 5-11월 ▶ 장소: 롯데시네마 8개 상영관 ▶ 장르: 영화, 공연예술

2017년 로열오페라하우스(Royal Opera House)의 최신작들이 극장에서 상영된다.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Norma)를 필두로, 모차르트의 정통 오페라인 <코지 판 투테>, 세계적인 테너 비토리오 그리골로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오펜바흐의 드라마 <호프만 이야기>, 로열 발레의 대표적인 프로덕션으로 공주, 요정 마법이 등장하는 환상의 세계를 표현한 <잠자는 숲 속의 미녀>,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푸치니의 <마담 버터플라이>, 그리고 베르디가 재현한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텔로>가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여덟 개 롯데시네마 상영관에서 선보여진다.

▶ 주최: 콘텐츠샵

Opera in Cinema 2017 Season

▶ Date and time : May – November 2017 ▶ Venue : Lotte Cinema ▶ Genre : Film, Performing Arts

Watch the latest productions from the Royal Opera House.

Between May and November, you can see Bellini's opera *Norma*, Mozart's classic *Cosi Fan Tutte*, and Offenbach's *Les Contes D'Hoffman* featuring Vittorio Grigio in the title role. You can also watch The Royal Ballet's production of *The Sleeping Beauty* as well as Puccini's *Madam Butterfly* conducted by Antonio Pappano and Verdi's passionate retelling of Shakespeare's *Othello*.

Don't miss out on this unique experience.

▶ Hosted by : The Content Shop



<로미오와 줄리엣>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

- ▶ 일시: 2017년 6월 15일 20.00 ▶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 장르: 음악

영국 대표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모티브로 한 차이콥스키와 프로코피예프의 명작부터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번스타인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까지 비극적 사랑이야기를 관현악으로 만나는 특별한 공연이 개최된다.

“두 명문가, 무대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베로나..”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는 스토리 중 하나이다. 가문의 싸움에 희생되는 젊은 연인들을 그린 이 이야기는 수백 년에 걸쳐 전 세계 여러 나라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차이콥스키는 유명한 <사랑의 테마>와 더불어 난폭한 세상 속에서 금지된 갈망을 노래하는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 서곡을 썼고, 번스타인은 1950년대 뉴욕 빈민가를 배경으로 음악과 무용을 함께 담아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탄생시켰다. 프로코피예프의 발레 음악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은 이 불운한 러브 스토리를 구소련 시대 러시아의 대담한 멜로디와 힘에 넘치는 리듬으로 재구성했다.

이 작품들은 2016-17 시즌 릴 국립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취임한 젊은 지휘자 알렉산드르 블로슈의 지휘 아래 ‘열정적인 영혼’이라는 공통점으로 표현된다.

- ▶ 주최/주관: 서울시립교향악단

Romeo and Juliet presented by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 ▶ Date and time : 20.00, Thursday 15 June 2017 ▶ Venue :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 ▶ Genre : Music

One of the most tragic love stories written by the great English writer Shakespeare has inspired many great composers. In this concert, the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performs the *Romeo and Juliet*-themed masterworks by Tchaikovsky, Prokofiev and Bernstein under the baton of young maestro Alexandre Bloch.

“Two households, both alike in dignity, In fair Verona, where we lay our scene...” Shakespeare’s *Romeo and Juliet* is one of those stories that transcend its own time and culture. This tale of young lovers caught between warring factions has inspired composers across different nations and centuries. Tchaikovsky’s overture, with its famous love theme, sings of forbidden longing in a violent world, while Leonard Bernstein’s *West Side Story* shifts the drama, kicking and dancing, to the mean streets of 1950s New York. Prokofiev’s much-loved ballet, meanwhile retells Shakespeare’s ‘star-crossed’ love story in the bold melodies and powerful rhythms of Soviet Russia.

Under the superb young French conductor Alexandre Bloch, they have one thing in common: a passionate soul.

- ▶ Hosted and organised by :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19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라운드테이블

- ▶ 일시: 2017년 6월 13-14일 ▶ 장소: 제주 해비치 호텔 & 리조트
- ▶ 장르: 공연예술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 예술 축제인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이 10주년을 맞이하여 '영국 공연예술 들여다보기' 교류협력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영국 공연 예술의 현주소는 물론, 한국과 영국의 국제교류 관계까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특히 '영국 예술 산업에 관한 자유로운 소개'를 주제로 진행되는 워크숍에서는 파념 몰딩 & 카라반(Farnham Maltings and Caravan)의 마크 메이킨(Mark Makin)과 개빈 스트라이드(Gavin Stride)가 영국 예술계에 대해 자유롭게 캐주얼하게 소개한다. 영국의 예술과 지역 자치단체 기금, 투어링 인프라, 프로그래밍, 도전과 기회, 관객 개발, 지속 가능한 공연장, 페스티벌 운영 등에 관해서도 살펴본다.

이번 행사는 영국공연예술 국제교류, 공연유통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영국과 한국의 공연예술 교류 협력 및 진출을 위한 소통의 장을 열고, 영국 예술 산업의 전문가들을 만나는 한편, 향후 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들을 포착해 낸다.

- ▶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문화예술회관련협회

Jeju Haevichi Arts Festival Roundtable

- ▶ Date and time : 13-14 June 2017 ▶ Venue : Haevichi Hotel & Resort Jeju
- ▶ Genre : Performing Arts

In partnership with Jeju Haevichi Arts Festival, we present a networking programme to promote performing arts businesses and develop the culture for performances in various genres across Jeju Island.

A special workshop, *An informal, discursive introduction to the UK arts scene*, is held by Mark Makin and Gavin Stride of Farnham Maltings and Caravan. The session covers arts and local authority funding, touring infrastructure, programming,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udience development and sustainable venue and festival management in the UK.

The programme provides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UK performing arts scene and its current status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connections between the UK and Korea. It also offers a place to network, share information on cultural organisations and collaborate.

- ▶ Hosted by : Art Council Korea, Jeju Province, The Korean Cultural & Arts Centers Association

20



Has Bean Neal Jones, 2013
© the artist,
courtesy the artist and Southard Reid.
Part of The Painting Show

한영 현대미술 교류전 <페인팅 쇼>

- ▶ 일시: 2017년 7월 5일-9월 24일 ▶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 장르: 시각예술

영국과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회화 작가들을 초청하여 양국 현대회화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한영 현대미술 교류전 <페인팅 쇼>가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영국과 한국의 현대 회화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는 <페인팅 쇼>는 동시대 두 나라 회화의 흐름을 제시하는 작가 23명의 작품 70여 점을 소개한다. 이전 시대와 다른 색깔과 느낌을 갖고 있는 회화는 디지털 시대에 들어선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주며 때로는 정치, 종교, 사회적 갈등 등 이 시대 현실에 대한 반성의 흔적을 보여준다. 영국문화원 최근 소장품들과 함께 한국과 영국의 현대 회화를 풍성하게 감상하며, 다양하게 변모하는 현대 미술의 세계에서 회화의 존재 가치와 그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 ▶ 주최: 고양문화재단

The Painting Show

- ▶ Date and time : 5 July – 24 September 2017 ▶ Venue : Goyang Aram Art Gallery ▶ Genre : Visual Arts

Goyang Aramnuri Aram Art Gallery and the British Council present *The Painting Show*, an exhibition of contemporary paintings from the British Council Collection. The UK Painting Show introduces the latest works by 15 British artists, all actively engaged in the UK contemporary art scene, while the Korea Painting Show sheds light on contemporary Korean painters of the 21st Century.

The artists from the UK and Korea demonstrate the richness and vigour of contemporary painting, how it can reflect political, religious and social aspects of everyday life and the rise of digital. The aim is to encourage and expand artistic exchanges between the UK and Korea in the field of contemporary painting. As the world of contemporary art undergoes rapid change, this special exhibition offers a chance to examine the value of the existence of paintings and their transformations.

- ▶ Hosted by : Goyang Cultural Foundation



Willie Doherty
Remains, 2013
High-definition video

2017 아트선재 프로젝트 #3: 윌리 도허티 - 잔해

▶ 일시: 2017년 7월 8일 - 8월 6일 ▶ 장소: 아트선재센터 ▶ 장르: 시각예술, 영화

영국문화원은 북아일랜드 동시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윌리 도허티의 작업을 아트선재센터, 아일랜드 현대미술관과 함께 소개한다. 윌리 도허티는 북아일랜드 데리 출신으로 국제적인 미술상인 터너상 후보로 두 차례 오른 바 있다. 대부분의 작품이 데리를 배경으로 하며 사진, 영상, 사운드 설치 작업을 통해 인간의 기억과 회상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오류를 탐구한다. 7월 7일에는 아티스트 토크와 영상 스크리닝을 가진다.

▶ 주최 : 아트선재센터, 아일랜드 현대미술관

2017 Art Sonje Project #3: Willie Doherty – Remains

▶ Date and time : 8 July – 6 August 2017 ▶ Venue : Art Sonje Center ▶ Genre : Visual Arts, Film

Willie Doherty, one of Northern Ireland's most celebrated artists, has his first solo show in Korea from 8 July to 6 August.

Doherty is a native of Derry, Northern Ireland, and has been nominated twice for the Turner Prize. Basing much of his work around Derry, he uses photography, video and sound installations to explore the fallibility of human memory and recollection.

Charlotte Higgins, chief arts writer of the Guardian, said: "The artist does not tackle the Troubles directly, as a documentary maker would, but aslant, like a poet, making nourish films or photographs of the city's hinterland, sometime accompanied by text, that seem to vibrate with dread."

An artist's talk and film screening are organised as part of the programme on 7 July.

▶ Hosted by : Art Sonje Center, Irish Museum of Modern Art

크리에이티브 퓨처스 페스티벌

크리에이티브 퓨처스 페스티벌은 새로운 창작 접근법과 혁신적인 시도의 영국작품과 한·영 공동 창작 작품을 한국의 관객들에게 선보이고자 기획되었다. 페스티벌은 공연, 전시, 레지던시, 워크숍, 그리고 관객과의 대화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7월부터 10월까지 펼쳐지는 페스티벌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새로운 창작적 접근으로 관객개발을 하고 있는 작품과 함께 신진 및 중견 예술가들의 장르 경계를 허무는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서울세계국제무용축제 및 서울국제공연예술제와 협력하여 영국 현대무용의 현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크리에이티브 퓨처스 페스티벌은 한국의 축제, 공연장 등 다양한 협력기관과 공동기획된다.

Festival Creative Futures

Festival 'Creative Futures' aims to present and share innovative UK works with Korean audiences through presenting new works and different approaches and collaborative works between UK and Korean artists. The Festival includes showcases, residency, workshops and dialogues. The Festival has two themes, running from July through to October 2017.

The first theme focuses on not only the works that develop new audiences with new approaches but also on the works and emerging and mid-career artists that push the boundaries between art forms. The second theme introduces new works by established artists where we highlight UK contemporary dance scene. We do this in partnership with Seoul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and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크리에이티브 퓨처스 페스티벌: 새로운 관객, 새로운 접근, 경계의 확장

▶ 일시: <애들러와 깃> 리딩공연 | 2017년 7월 6일 19.30 / 창작워크숍 | 2017년 7월 7, 8, 10일

<망원경> | 2017년 7월 21-23일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 | 2017년 7월 13-15일

레이 리 <사운드 아트와 환경> 워크숍 | 2017년 10월 23-25일

▶ 장소 : 두산아트센터 Space 111, 국립극단, 문화역서울284 3등 대합실 ▶ 장르 : 공연예술, 시각예술, 영화

팀 크라우치 <애들러와 깃> 리딩공연 및 창작워크숍

영국의 극작가, 연출가이자 배우인 팀 크라우치가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 기념으로 초청되어 <나, 말블리오>를 공연한 지 반년만에 한국에 다시 방문한다. 영국문화원, 두산아트센터, 국립극단의 초청으로 방문하는 팀 크라우치는 두산아트센터에서 7월 6일 본인의 작품 <애들러와 깃> 낭독극을 관람하고 이 낭독극을 기획, 연출, 번역한 손원정 번역가와 관객과의 대화를 갖는다. <애들러와 깃>은 20세기 후반 뉴욕의 개념예술가 커플 애들러와 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애들러와 깃이 모든 명성을 뒤로 하고 은둔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애들러가 죽자 그를 흠모하던 여배우가 자료조사차 이들의 은둔지를 찾아간다는 줄거리이다. 이와 더불어, 7월 7, 8, 10일 총 3일간 진행되는 국립극단의 '2017 팀 크라우치 창작워크숍'에서는 한국의 극작가, 연출가, 배우 등 총 33명의 연극인과 워크숍을 가진다.

▶ 주관: 두산아트센터(리딩공연), 국립극단(창작워크숍)

팀 스푸너 <망원경>, 크리스 도브라울스키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

문화역서울284는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주제를 통해 시간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Project 284: 시간여행자의 시계>전을 개최한다. 고풍스러운 공간을 배경으로 설치, 사진, 조각, 영상,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혼합매체, 건축 등 다채로운 예술 장르를 아우르는 76점의 작품들이 소개된다. 전시의 일환으로 런던 출신의 아티스트 팀 스푸너가 <망원경>이라는 작품을 선보이며, 망원경 렌즈를 통해 초현실적인 상상의 세계를 보여준다. 더불어, 키네틱 오브제 예술가 크리스 도브라울스키의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를 선보이며 작가는 아버지의 낡은 자동차를 고쳐 타고, 젊은 시절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여정을 강연과 공연이 복합된 독특한 형태로 보여준다.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역서울284

레이 리 <공공공간 사운드 아트> 워크숍

사운드 아티스트 레이 리는 야외, 공공공간에서 <공공공간 사운드 아트>라는 제목으로 삼일간의 워크숍을 한국의 예술가와 함께한다.

▶ 주최: 101크리에이션센터, 레이 리

▶ 주관: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사운드 아트와 환경> 워크숍은 잉글랜드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동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다.

Festival Creative Futures:

New Approaches, New Audiences, Pushing the Boundaries

▶ Date and time : Reading Performance | 19.30, 6 July 2017 / Creative Workshop | 7, 8, 10 July 2017

The Telescope | 21-23 July 2017 / *All Roads Lead to Rome* | 13-15 July 2017

▶ Venue : Doosan Art Center Space 111, National Theatre Company of Korea, Culture Station Seoul 284

▶ Genre : Performing Arts, Visual Arts, Film

Adler and Gibb Reading Performance and Creative Workshop with Tim Crouch

Tim Crouch, an experimental British actor, writer and director, visits Seoul once again after his previous visit to Korea in association with Shakespeare Lives, the British Council's global celebration commemorating the 400th anniversary of Shakespeare's death in 2016. Crouch delivers an artist's talk following a reading performance of his work *Adler and Gibb* at Doosan Art Center. Janet Adler and Margaret Gibb were conceptual artists working in New York at the end of the last century. They were described by art critic Dave Hickey as the 'most ferociously uncompromising voice of their generation'. Tim also leads a workshop with 33 Korean writers, directors and actors recruited by the National Theatre Company of Korea for three days after the reading performance.

▶ Organised by : Doosan Art Center and National Theatre Company of Korea

The Telescope by Tim Spooner, All Roads Lead to Rome by Chris Dobrowolski

'Project 284: The Clock of Time traveller' is a multidisciplinary arts programme that allows you to enjoy the meaning of time through various artworks and performances. The events are formed with interesting stories about time which artists have expressed through installations and performances. On the last three days of this programme, London based artist Tim Spooner's *The Telescope* is showcased to the public. *The Telescope* looks through a broken telescope at a world which responds to being watched, a reflection of the watcher. Also, an imaginary lecture *All Roads Lead to Rome* is presented by London-based artist Chris Dobrowolski. *All Roads Lead to Rome* brings together car mechanics, a road trip, dictators and the fetishisation of possessions in a solo performance using old photos, new film and surprising mechanical objects.

▶ Hosted by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Organised by :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Culture Station Seoul 284

Public Space, Sound Art by Ray Lee

Ray Lee leads a three-day workshop in approaches to making sound art for outdoor and public locations. During the workshop, the participants work through a series of practical exercises designed to develop their understanding of how sound art can be effectively used in the environment. Over the three days they develop small-scale sound art projects that are realised and presented to the other participants and an invited audience on the final day.

▶ Hosted by : 101 Creation Centre and Ray Lee

▶ Organised by : Seoul Street Arts Creation Centre

This workshop is funded by Arts Council Korea and Arts Council England Joint Fund.

22-2

크리에이티브 퓨처스 페스티벌: 영국 현대무용 포커스

- ▶ 일시 : 2017년 10월 9-14일 ▶ 장소 :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 CKL 스테이지, 아르코예술극장대극장
- ▶ 장르 : 공연예술

서울세계무용축제와 서울국제공연예술제를 통해 혁신적이고 우수한 영국의 현대무용작품을 한국에 소개한다.

서울세계무용축제에서는 '영국특집'이라는 타이틀 아래 영국의 현대무용의 현재를 보여 줄 수 있는 네 개의 우수한 무용 작품을 선보인다. 영국 현대무용을 대표하는 안무가 중 한 명인 러셀 말리펀트의 데뷔 2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구성된 <숨기다 | 드러내다>, 힙합 무용극에 현대적 감수성을 입히는 실험적 단체, 파 프롬 더 놴이 한국인 무용수 네 명과 함께 선보이는 신작 <젠 20:20>, 신체의 물질성과 잠재성에 대해 탐구하는 스코틀랜드 출신 로비 싱의 <더글라스>, 그리고 세계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2인 무용단 이고르 & 모레노의 <Idiot-Syncrasy>가 선보여진다.

또한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는 인도의 전통무용 카타크 훈련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무용과 결합한 독특한 안무를 통해 성에 대한 사회적 규범에 의문을 제기하는 아르람 칸 컴퍼니의 <엔틸 더 라이언즈>가 소개된다. 영국현대무용 포커스는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대무용 워크숍도 함께 진행된다.

<젠 20:20>는 잉글랜드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동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다.

- ▶ 주최/주관 : 서울세계국제무용축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Festival Creative Futures: UK Dance Connection

- ▶ Date and time : 9-14 October 2017 ▶ Venue : Grand Theatre of Mary Hall, Sogang University / CKL Stage / ARKO Arts Theater Main Hall ▶ Genre : Performing Arts

In partnership with Seoul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SIDance) and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SPAF), we introduce innovative UK contemporary dance works to Korean audiences.

Under the title of *UK Dance Connection*, SIDance 2017 brings four outstanding British performances. *Conceal | Reveal*, a piece by Russell Maliphant who celebrated 20 years at the forefront of ground-breaking contemporary dance; a new work *Gen 20:20* by Far From the Norm, an experimental dance company that takes a fresh perspective on hip hop dance theatre; *Douglas* by Robbie Synge; and *Idiot-Syncrasy* by Igor & Moreno are showcased.

At SPAF, *Until the Lions* by Akram Khan Company tells the audience what happens when society's gender roles become destructive rather than protective by mixing Kathak, the classical Indian dance, with contemporary dance. UK Dance Connection provides various contemporary dance workshops as well.

Gen 20:20 is funded from Arts Council Korea and Arts Council England Joint Fund.

- ▶ Hosted and organised by : Seoul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 Anna Freeman Bentley Restricted Oil on board 60x70cm 2017

런던 나우

▶ 일시 : 2017년 7월 10일 - 9월 8일 ▶ 장소 : 스페이스K_과천 ▶ 장르 : 시각예술

오늘날 영국의 현대미술은 국제 미술계에서 인정 받으며 현대 문화 지형도에서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그 중심지인 런던은 영국이라는 국가적 틀을 벗어나 명실상부한 동시대 미술의 선두주자로 우뚝섰다.

이번 전시는 런던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는 세 명의 신진 작가, 애나 프리먼 벤틀리, 벤자민 브렛 그리고 사라 레더만을 통해 창조적인 플랫폼으로서의 런던을 다시 조망한다. 참여 작가 애나 프리먼 벤틀리, 벤자민 브렛, 사라 레더만은 출생 지역과 스타일은 달라도 모두 런던이 배출한 아티스트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작가들은 경계를 두지 않고 전 세계로부터 창조적 에너지를 포용하고 새로운 창조력으로 재생산한다. 전시와 함께 진행되는 연계 프로그램 '아임 페인터'를 통해 런던을 상징하는 프레임을 두른 투명한 보드 위에 그림을 그리며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다.

▶ 주최 : 코오롱 ▶ 주관 : 스페이스K

LONDON NOW

▶ Date and time : 10 July - 8 September 2017 ▶ Venue : Space K_Gwacheon ▶ Genre : Visual Arts

British contemporary art draws a good deal of attention internationally, especially after yBa (young British artists) movement led by Damien Hirst. Beyond the title of the national capital city, London now becomes the landscape of contemporary art. This exhibition *LONDON NOW* retakes London as a creative platform through the participating young artists from the city.

The artists exhibiting this show may have different backgrounds and have their own artistic languages, but they are all settled to work in London. 'The power of London' comes from the city itself where they reproduce with new creative power of embracing creative energy from the world with no boundaries. The viewer experiences the new paradigm of the art from London, even more the future of contemporary art through the three artists. Space K also runs a painting programme 'I'm a Painter' to visitors of all ages to experience painting.

▶ Hosted by : KOLON ▶ Organised by : Space K



스코틀랜드 무빙토이 특별전

▶ 일시 : 2017년 7월 12일 - 10월 29일 ▶ 장소 :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관 ▶ 장르 : 시각예술, 공연예술

기계장치로 움직이는 인형이나 조형물을 의미하는 오토마타(Automata)로 구성된 독특한 전시 <스코틀랜드 무빙토이 특별전>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최초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토마타 그룹인 영국의 카바레 미케니컬 시어터와 스코틀랜드의 샤만카 키네틱 시어터의 작품들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오토마타 작가 전승일의 작품도 볼 수 있으며, 오토마타를 직접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는 워크숍도 진행된다. 세계 최고의 오토마타 작가들이 오래 된 일상생활 물건들과 손으로 깎은 나무 인형들로 만들어낸 매력적인 키네틱 아트 작품들을 무빙토이 쇼 공연을 통해 선보이며, 관객들은 정교하게 설계된 작품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 더불어, 톱니를 돌리거나 버튼을 누르면서 오토마타에 대한 기본 지식과 기어, 캠, 지렛대가 어떻게 작품을 움직이게 하는지 배울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주최 : 국립중앙과학관, 대전MBC, 대전일보사 ▶ 주관 : 국립중앙과학관, (주)에듀씨에스

Moving Toys from Scotland

▶ Date and time : 12 July - 29 October 2017 ▶ Venue : National Science Museum

▶ Genre : Visual Arts, Performing Arts

Moving Toys from Scotland is a unique exhibition of dolls and sculptures (automata) display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t the National Science Museum.

Widely regarded as having revolutionised the art of automata in the UK and across the world, Cabaret Mechanical Theatre and Sharmanka Kinetic Theatre exhibit various mechanical devices and provide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original creativity and scientific thinking. Cabaret Mechanical Theatre pushed the boundaries of mechanical art, coming up with ever more ingenious, humorous and bizarre automatons. Sharmanka Kinetic Theatre, centering around the main artist Eduard Bersudsky, has created a weird and wonderful world from a magical mix of scrap, hand-carved wooden figures, atmospheric lighting and haunting melodies.

This exhibition also includes Korean artist Chon Seung-il's 11 stunning automatons showing his immaculate and beautiful automata designs which are rooted in the traditional Korean culture.

▶ Hosted by : National Science Museum, MBC Daejeon, Daejeon Ilbo ▶ Organised by : National Science Museum, EDU CS CO.,LTD

2017 한강포럼

▶ 일시: 2017년 7월 21일 15.00-18.30 ▶ 장소: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 장르: 창의경제

2017 한강몽땅 축제의 일환으로 '대도시의 강 이용 문화와 시민 참여'를 주제로 2017 한강포럼이 열린다. 이번 포럼에서는 런던의 템스 강 축제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한강과 한강공원의 이용, 한강몽땅축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문화, 축제, 관광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영국을 대표하는 두 전문가의 발제도 진행된다. 런던시 문화부장을 맡고 있는 쉐닌 바테나는 템스 강 활용을 위한 런던시 강 문화 정책에 대하여 발표하며, 비영리 공연예술단체 키네티카의 예술감독으로 영국-인도 문화연계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있는 알리 프리티는 템스 강의 시민참여 축제 프로그램 사례를 공유한다.

▶ 주최/주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2017 Hangang Forum

▶ Date and time : 15.00-18.30, 21 July 2017 ▶ Venue : Convention Hall, Banpo Sevitseom

▶ Genre : Creative Economy

The Hangang Forum brings together international cultural and festival experts to discuss the use of rivers for cultural events in major cities.

Chenine Bhatena, Senior Culture Manager of Greater London Authority presents London's policy on the use of the River Thames and Ali Pretty, Artistic Director of Kinetika shares examples of programming a festival on the River Thames.

The forum is part of the *Hangang Summer Festival*.

▶ Hosted and organised by : Hangang Project Headquarters



26

영국 국립미술관 테이트 명작展 - NUDE

- ▶ 일시: 2017년 8월 11일 - 12월 25일 ▶ 장소: 올림픽공원 소마미술관
- ▶ 장르: 시각예술

<영국 국립미술관 테이트 명작展 - NUDE>는 국내 첫 대규모 테이트미술관 소장품 전시로 올림픽공원 소마미술관에서 소개한다. 영국을 대표하는 미술관 테이트의 대표 소장품 중 19세기 후반부터 현대까지 '인간의 몸(누드)'을 주제로 파블로 피카소, 앙리 마티스, 오귀스트 르누아르, 에드가 드가 등 인상주의 거장들을 비롯해 테이트 모던이 자랑하는 초현실주의 및 현대미술 대표작가 만 레이, 막스 에른스트, 프랜시스 베이컨, 루시안 프로이트, 루이스 부르주아, 데이비드 호크니, 이밖에도 트레이시 에민, 사라 루카스 등 영국 현대미술 YBA 주역들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회화, 드로잉, 사진을 포함한 120여 점을 엄선하여 '역사적 누드', '초현실주의 누드', '사실주의 누드' 등 총 8개의 테마로 나누어 시대에 따른 변화, 발전해 온 다양한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특히 한 번도 유럽 밖으로 전시된 적 없었던 오귀스트 로댕의 대표작 '키스(The Kiss)' 대리석 원본 조각작품이 아시아 최초로 전시된다. 이번 전시를 통해 거장들이 예술로써 담아낸 인간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 ▶ 주최: 조선일보사, 국민체육진흥공단, Tate ▶ 주관: 소마미술관, 한솔BBK

NUDE : Masterpieces from the Tate

- ▶ Date and time : 11 August - 25 December 2017 ▶ Venue : Seoul Olympic Museum of Art ▶ Genre : Visual Arts

NUDE : Masterpieces from Tate presents a selection of over 100 significant works from the Tate collection with the theme of naked body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present time including paintings, sculpture, works on paper and photography by artists for whom the nude was at the centre of their practice.

Arranged thematically around key subjects and locations for the depiction of the nude, the exhibition shows works of different periods to highlight continuities and shifts in portrayal. Auguste Rodin's sculpture *The Kiss*, travelling outside Europe and presented at Seoul Olympic Museum of Art for the first time in Asia.

- ▶ Hosted by : The Chosun Ilbo,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Tate ▶ Organised by : Seoul Olympic Museum of Art, Hansol BBK



AUGUSTE RODIN (1840-1917) / The Kiss / 1901-04 / Pentelican marble
Purchased with assistance from the Art Fund and public contributions 1953

27

제14회 EBS국제다큐영화제

▶ 일시: 2017년 8월 21-27일 ▶ 장소: 아트하우스 모모, 메가박스 킨텍스 ▶ 장르: 영화

2004년 '변혁의 아시아'라는 주제로 시작된 EBS국제다큐영화제(EIDF)는 세계에서 엄선한 다큐멘터리를 방송과 극장 상영으로 동시에 제공하는 세계 유일의 영화제이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EBS국제다큐영화제는 네 편의 영국 작품을 소개한다.

2017 선댄스 수상작인 애덤 소블 감독의 <우리들의 월드컵>이 국내 최초로 상영되며, 로이 코언 감독의 <두뇌혁명 시.>가 아시아 최초로 선보여진다. 현대 대중음악의 거장인 데이빗 보위의 마지막 5년을 다룬 프랜시스 웨이틀리 감독의 <데이빗 보위: 지기 스타더스트 마지막 날들>과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중 하나인 켄 로치의 삶을 다룬 루이스 오스몬드 감독의 <켄 로치의 삶과 영화> 또한 방송과 극장을 통해 상영된다.

▶ 주최/주관: EBS

The 14th EBS International Documentary Festival

▶ Date and time : 21-27 August 2017 ▶ Venue : arthouse MOMO, MEGABOX KINTEX

▶ Genre : Film

The world's only documentary festival with TV broadcasting and cinema screening, EBS International Documentary Festival (EIDF) has become one of the most prestigious festivals in the world since its launch in 2004 under the theme of 'Challenging Asia'. In this year, EIDF presents four selected works from the UK.

Sundance 2017 winner, *The Workers Cup* by Adam Sobel has its first screening in Korea. Asia premiere of *Machine of Human Dreams* by Roy Cohen also takes place. A sketch of an iconic artist, *David Bowie: The Last Five Years* by Frances Whately and *Versus: The Life and Work of Ken Loach*, a provocative yet playful study of Ken Loach's life by Louis Osmond are also screened.

▶ Hosted and organised by : EBS





Rachel Maclean
The Lion and The Unicorn, 2012 (film still).
© the Artist, Commissioned by The Edinburgh Print

<불협화음의 기술: 다름과 함께 하기>

▶ 일시 : 2017년 9월 12일 - 11월 12일 ▶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 3층 ▶ 장르 : 시각예술

서울시립미술관은 <불협화음의 기술: 다름과 함께 하기>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영국문화원의 8,500여 점의 소장품 중에서 약 26점을 선별한 전시로, 1980년부터 현재까지 계층, 민족, 경제, 정치적 차이로 인해 불거진 영국 사회의 '불협화음'을 심도 있게 탐구하는 16명의 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터너상 수상자인 제레미 델러, 그레이슨 페리, 볼프강 틸만스, 질리안 웨어링과 2017년의 후보자 루바이나 히미드의 작품은 정체성과 그 재현에 관한 시급한 논의를 이끌어 낸다. 존 아콕프라, 모나 하툼, 레이첼 맥클린, 칼리 스푸너의 작업은 이미 관습화된 사회 계급과 정치적 분쟁을 탐구한다.

<불협화음의 기술: 다름과 함께 하기>는 오늘날의 영국 미술을 한 갈래로 정의하기보다는, 영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배경과 연령대의 작가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첨예한 이슈에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접근하고 개입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당대의 사회적 변화와 공명하는 예술 실천의 흐름을 살펴보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나아가 이들의 예술 실천이 다양한 주체의 발화로 이뤄진 불협화음의 공간을 생성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는지 질문한다.

▶ 주최/주관 : 서울시립미술관

The Art of Dissonance

▶ Date and time : 12 September – 12 November 2017 ▶ Venue : Seoul Museum of Art ▶ Genre : Visual Art

Seoul Museum of Art (SeMA) presents *The Art of Dissonance*. This exhibition brings together 26 artworks by 16 contemporary artists, carefully selected from the 8,500 works in the British Council Collection. The exhibition delves deep into the "dissonance" of British society from the 1980s to today and explores differences in social class, ethnicity, and economic and political positions through the artists' own visual languages and voices.

Featuring Turner Prize-winning artists Jeremy Deller, Grayson Perry, Wolfgang Tillmans and Gillian Wearing, as well as 2017 nominee Lubaina Himid, this exhibition explores pressing debates around identity and its representations. Works by acclaimed artists John Akomfrah, Mona Hatoum, Rachel Maclean and Cally Spooner examine preoccupations with social class and political dispute.

What emerges from this assemblage of artwork is not a singular definition of British art today, but rather an exploration of how UK-based artists from diverse backgrounds and generations approach and engage with social issues that remain urgent for artists and the public alike.

▶ Hosted and organised by : Seoul Museum of Art

청주공예비엔날레: 영국관 <형태+움직임>전

▶ 일시: 2017년 9월 13일 - 10월 22일 ▶ 장소: 옛 청주연초제조창 ▶ 장르: 공예

올해 10회를 맞이하는 청주공예비엔날레는 여러 국가를 초대하여 세계관을 마련한다. 그 중에서도 영국관은 영국공예청, 스코틀랜드 공예비엔날레, 13 Ways가 함께 협력하여 <형태+움직임>전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각 협력기관이 기획한 전시와 더불어 2017 공예영화제 <리얼 투 리>상영관까지 총 4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있다. 작품들은 제작과정 속에서 생성되는 움직임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규율, 규모, 소재 등을 통해 표현 하는 동시에 영국의 풍부한 공예세계를 다방면으로 보여준다

▶ 주최: 청주시 ▶ 주관: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

Cheongju Craft Biennale: UK Pavilion “Form + Motion”

▶ Date and time : 13 September – 22 October 2017 ▶ Venue : Former tobacco processing plant in Cheongju
▶ Genre : Craft

As Cheongju Craft Biennale welcomes its 10th anniversary this year, we host a UK Pavilion as its official programme. The UK Pavilion presents the premiere of *Form + Motion*, in partnership with Crafts Council, Craft Biennale Scotland, and thirteen ways. The pavilion is composed of four different spaces curated by each partner organisation, along with a screening zone of 2017's award-winning films from the Real to Reel Film Festival. The balance between English and Scottish craft works is in harmony, allowing audiences to see the wide range of the UK's fine craft culture.

▶ Hosted by : Cheongju City ▶ Organised by : Cheongju Craft Biennale Organizing Committee

아트인스 대전 17 영국 포커스

- ▶ 일시 : 2017년 9월 15-24일 ▶ 장소 : 대전예술가의집,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전시립미술관
▶ 장르 : 시각예술, 영화, 교육, 과학

영국은 과학과 예술의 융합에 있어 다양한 실험을 해온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영국의 예술기관들과 예술가들이 대전 과학단지의 과학자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예술 및 과학적 가능성을 실험하고 양국간 과학·예술 분야 파트너의 장기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

아트인스 랩 투어(Artience Lab Tour)

과학자, 기술자 및 예술가의 협업을 연구하고 기금 제공을 담당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사이언스 갤러리 런던(Science Gallery London)과 팩트랩(FACTLab)의 디렉터, 웰컴 트러스트(Wellcome Trust)의 아트 매니저 등 세 명의 전문가가 서울과 대전을 방문하여 과학자, 예술가, 해당 분야 전문가를 만나 향후 협력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영국문화원 초청 전시 <사일런트 시그널>

영국 웰컴 트러스트의 후원으로 제작된 프로젝트로 예술가와 과학자로 구성된 여섯 팀이 협력하여 만든 애니메이션 영상을 전시하고 참여 예술가와 과학자를 초청하여 작업과정을 대중과 공유한다. 전시 연계 토크도 함께 열린다.

크리에이션 챌린지 30x30

서른 명의 과학자와 예술가가 현장에서 팀을 이루어 에이징(Ageing)을 주제로 30시간 안에 협업 작품을 창출하는 챌린지로서 해커톤 형식으로 열린다. 양 분야의 융합을 장려하는 영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의 젊은 작가와 과학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퍼블릭 토크: 예술과 과학의 충돌

KAIST에서 진행된 무박 30시간의 해커톤 중 경험한 과학과 예술의 충돌 지점을 대중과 공유하고, 양 분야 융합의 의미와 가치 및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 ▶ 주최/주관 : 대전문화재단

Artience Daejeon 17 UK Focus

- ▶ Date and time : 15-24 September 2017 ▶ Venue : Daejeon Artist House, KAIST, Daejeon Museum of Art
▶ Genre : Visual arts, Film, Science, Education

The UK has excellence and expertise in the convergence of art and science through years of experience. This project aims to create opportunities for the UK's artists and artistic institutes to collaborate with scientists in Daejeon's science hub and develop sustainable partnerships in arts and science.

Artience Lab Tour

Daniel Glaser, Director of Science Gallery London, David Cahill Roots, Arts Manager of Wellcome Trust and Mark Wright, Director of FACTLab visit Daejeon's science hub, where Korean governmental research institutes are gathered, as well as organisations and policy makers in Seoul to prepare the programme.

Silent Signal

The British Council and Daejeo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bring a great example of collaborations between artists and scientists who explore together new ways of thinking about the human body. We also have a public talk with Bentley Crudgington, a biomedical scientist who was Scientific Advisor on the Silent Signal project, and Vicky Isley from boredomresearch, an award-winning artist duo who created Afterglow in collaboration with Dr Paddy Brock of University of Glasgow. They talk about their experience in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and challenges and meanings of cross-sector collaboration.

Creation Challenge 30x30

Thirty arts and science students/professionals from the UK and Korea have a two-day workshop to create prototype artworks for a presentation at the festival.

- ▶ Hosted and organised by : Daejeo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내셔널시어터웨일스 - 뛰다 예술가들의 놀이터: 예술튕발 국제 예술가 개발 레지던시

▶ 일시 : 2017년 9월 11-22일 ▶ 장소 : 화천, 서울 ▶ 장르 : 음악, 공연예술, 시각예술

내셔널시어터웨일스와 공연창작집단 뛰다는 두 극단의 공통 관심사인 장소특정적, 사회참여적, 몰입형 작업을 주제로 국제 예술가 개발 레지던시를 진행한다.

9월 11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화천 '문화공간 예술 튕발'에서 연극, 무용, 영상, 사운드 등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는 18명의 한국, 영국(웨일스), 일본, 인도 예술가들이 모여 혁신적인 아이디어 개발, 예술적 실험 및 예술적 협력을 진행하고, 9월 22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에무'에서 열흘 간의 레지던시 과정을 공유한다.

공연창작집단 뛰다는 예술가들의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창작-공연-교육활동을 통해 이 땅에 예술의 발을 일구는 문화예술집단이다.

내셔널시어터웨일스는 2009년 11월에 설립된 국립극단으로 극장 뿐 아니라 기차, 군사훈련소, 해변, 학교, 온라인 공간 등 다양한 장소를 넘나드는 작품 선보이고 있으며 웨일스 자연, 도시, 마을, 다양한 이야기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작업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웨일스인터내셔널의 지원을 받았다.

National Theatre Wales – Tuida Artists Playground: Tutbat International Performance Residency

▶ Date and time : 11–22 September 2017 ▶ Venue : Hwacheon and Seoul
▶ Genre : Visual Arts, Performing Arts, Music

National Theatre Wales (NTW) and Performance Group Tuida develop and deliver an international artist development residency together. This focuses on the generation of innovative ideas, experimentation and the formation of unexpected artistic collaborations.

18 artists from the UK (Wales), Korea, India and Japan, who have diverse backgrounds including theatre, dance, film and sound, come together in Hwacheon from 11 to 21 September, and share their experience with their peers in Seoul on 22 September.

NTW is the English-language national theatre company of Wales and was launched in November 2009. It has staged 50 productions on trains, military training grounds, beaches and mountains, in warehouses, nightclubs, tents, village halls, schools, aircraft hangars and libraries, all over cities and towns in Wales, Tokyo and online.

Performance Group Tuida is a performance group formed in 2001 which aims to create open, nature-friendly and evolving plays. In June 2010, the group moved their 'Creative Space' and 'Living Space' to an abandoned school in Hwacheon, Gangwon-do, and are in the process of searching for new possibilities for theatre in the region. Their unique signature is built upon continuous experiments in each play, and their Korean-yet-cosmopolitan style has earned high acclaims in Japan, China, Hong Kong, Taiwan, the US and Ireland through participation in numerous international festivals.

This programme is funded by Arts Council Korea and Wales International.



© Seoul International Community Orchestra Festival

제4회 서울국제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

▶ 일시 : 2017년 9월 16-24일 ▶ 장소 : 세종문화회관 ▶ 장르 : 음악

제4회 서울국제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SICOF)에서는 영국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인 노스데본시포니아를 비롯하여 쓰레기 매프지에서 기적의 음악교육을 일구어 낸 카테우라재활용오케스트라, 일본아마추어오케스트라연맹(JAO)이 각 대륙별 대표로 초청된다. 또한 전 세계 생활예술음악인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연주 동영상을 통해 29개국에서 선발된 63명의 생활예술음악인들과 함께 축제의 시그니처 오케스트라인 서울국제생활예술오케스트라(SICO)를 창단한다.

이번 축제에서 소개되는 영국의 노스데본시포니아는 연령, 인종, 종교, 성별 등 다양성을 존중하는 오케스트라의 이념 아래 의사, 교사, 집배원 등 다양한 배경과 연령층의 50-80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이다. 모든 단원은 아마추어 연주자이며,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 BBC의 TV쇼 <All Together Now: The Great Orchestra Challenge>의 우승팀이기도 하다.

▶ 주최 : 서울국제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

The 4th Seoul International Community Orchestra Festival

▶ Date and time : 16-24 September 2017 ▶ Venue : Sejong Center ▶ Genre : Music

Seoul International Community Orchestra Festival(SICOF) 2017 invites world-leading community orchestras including North Devon Sinfonia (NDS), The Recycled Orchestra of Cauntera and Japan Amateur Orchestra Association (JAO) to perform at Sejong Centre for The Performing Arts with 49 domestic community orchestras.

This year an orchestra composed of 62 artists from 29 countries in different age groups with diverse backgrounds is first introduced to the public.

North Devon Sinfonia is a full-scale symphony orchestra comprising between 50 and 80 players of different backgrounds and age groups under the ethos of inclusivity, embracing all players irrespective of age, race, religion, gender or sexual orientation. The orchestra's current membership reflects a broad cross-section of North Devon society and includes doctors, teachers, a postman and many more.

▶ Hosted by : Seoul International Community Orchestra Festival

셰익스피어소리극 <헤이 논 노니!>

▶ 일시 : 2017년 9월 17일 - 10월 7일 ▶ 장소 : 전주(한국소리문화의전당), 완주(전통문화체험장), 고양(호수공원 잔디마당), 서울(청계광장) ▶ 장르 : 공연예술

인터내셔널액터스앙상블은 영국 셰익스피어 글로브극장 '인터내셔널 액터스 펠로우십(International Actors Fellowship)'에 선발된 14개국 23명의 배우들로 구성된 다국적 셰익스피어 극단이다. 2016년 멕시코에서 올린 장단공연으로 현지 관객과 언론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2017년 평창문화올림픽 아트그룹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창문화올림픽 프로젝트에는 한국, 미국, 멕시코, 브라질,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등 7개국 11명의 배우들이 모여 한국관광객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셰익스피어극을 선보일 예정이다. 다국적 배우들의 여섯 가지 언어와 한국 전통음악이 '소리의 조화'를 이룬 셰익스피어소리극 <헤이 논 노니!>는 셰익스피어의 심장, 글로브극장이 추구하는 가볍고 경쾌한 분위기를 한국 관객들에게 전달해 줄 것이다.

국악그룹 정가악회와 다국적극단 인터내셔널액터스앙상블의 협업으로 탄생할 이번 작품(연출 조성우)은 전주세계소리축제, 고양호수예술축제, 서울거리예술축제에 공식초청되어 올 9월 말부터 본격 투어에 돌입한다.

▶ 주최/주관 : 인터내셔널액터스앙상블 (제작 : 키위아트인터내셔널)

Hey No Nonny!

▶ Date and time : 17 September - 7 October 2017 ▶ Venue : Jeonju, Wanju, Goyang, Seoul Gosa-dong, Jeonju
▶ Genre : Performing Arts

The International Actors Ensemble (IAE) is a Shakespeare theatrical group that consists of 23 actors from 14 nations who won the International Actors Fellowship at the Shakespeare's Globe Theatre in London. The Ensemble astounded the world with its debut production in Mexico in 2016, with very favourable responses from spectators and the local media. IAE was also designated as the theatre group for the PyeongChang Cultural Olympiad.

In this project, 11 actors from seven nations (Korea, USA, Mexico, Brazil, Australia, New Zealand and Italy) present a contemporary adaptation of several Shakespeare plays. Six different languages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are harmonised into a 'nouvelle vague' of the Shakespeare-Sori (sound) play *Hey No Nonny!* It delivers the light hearted and cheerful ambience of Shakespearean drama that is quintessentially pursued by the very heart of Shakespeare, the Globe Theatre.

This collaboration between traditional music band Jeong Ga Ak Hoe and multi-national group International Actors Ensemble, goes on tour from September to October, with performances at the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Goyang Lake Arts Festival and Seoul Street Arts Festival.

▶ Hosted and produced by : International Actors Ensemble (Produce: Keywe Art International)



© Pete Le May

서울거리예술축제

▶ 일시 : 2017년 10월 5-8일 ▶ 장소 : 광장(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거리(청계천로, 덕수궁돌담길), 도심재생공간, 서울시립미술관, 세종문화회관, 시민청 등 ▶ 장르 : 공연예술

2002년 월드컵 기간에 시청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시민이 스스로 거리 응원을 펼치며 축제 분위기를 만든 것에 착안하여 시작된 서울거리예술축제는 서울특별시에서 기획한 행사로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객과 소통한다. 올해 참가하는 영국 거리예술팀은 총 세 팀으로 현대적이며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간디니 저글링의 스매시

1992년 창립한 간디니 저글링(Gandini Juggling)은 세계적인 저글러 선 간디니(Sean Gandini)와 캐티 일라-호칼라(Kati Ylä-Hokkala)가 만든 단체로 현대 서커스의 선두에 서서 21세기의 저글링을 재창조하며 새로운 힘을 불어 넣고 있다. <스매시>에서는 금단의 열매를 다루는 솜씨로 전통 저글링과 현대 서커스 사이를 절묘하게 넘나드는 일곱 남자와 두 여자의 아슬아슬한 관계를 주의 깊게 바라본다.

줄리 비안 & 레올리엔느의 나를 던져줘

줄리 비안 (Joli Vyann)은 올리피아 퀘일(Olivia Quayle)과 안 파츠케 (Jan Patzke)가 2012년 설립한 단체로 서커스, 무용, 연극의 획기적인 퓨전을 통해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마음을 사로잡는 경험을 선사한다. 이번 행사에서 보여주는 <나를 던져줘>는 레올리엔느(본명: 플로랑스 캐일런 Florence Caillon)가 연출하고 자비에 더메리악(Xavier Dermeriac)과 함께 음악 작업을 한 작품으로, 양립되는 모순을 불러일으키는 두 사람 사이의 감정과 교감을 표현한다.

고블디국 씨어터의 소리 탐사대

고블디국 씨어터(Gobbledegook Theatre)는 작품을 통해 새로운 크로스 아트를 만들어내는 단체로, 야외의 낯선 장소에서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전문으로 한다. <소리 탐사대>에 초대된 관객들은 예쁘게 만들어진 트럼펫을 골라 집어 발 밑의 소리를 찾아다니는 소리 탐사대가 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땅 속에서 흐르는 비밀의 음악을 찾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작품이다.

▶ 주최 :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 주관 : 서울문화재단



'Ear Trumpet' by Gobbledegook Theatre © Dominic Old

Seoul Street Arts Festival

▶ Date and time : 5-8 October 2017 ▶ Venue : Squares (Seoul, Cheonggye, Gwanghwamun), Streets (Cheonggyecheo-ro, Deoksugung-gil), Seoul Museum of Art, Sejong Arts Centre, Seoul Citizen's Hall, etc ▶ Genre : Performing Arts

Originating from the festive spirit of The World Cup 2002, Seoul Street Arts Festival started in 2003 and has now developed into one of Seoul's most beloved events. It is held all throughout Seoul and has an audience of over one million. This year, three UK street art teams are invited to perform their contemporary and creative pieces.

Smashed by Gandini Juggling

Formed in 1992 by world-renowned jugglers Sean Gandini and Kati Ylä-Hokkala, Gandini Juggling continues to be at the vanguard of contemporary circus, reinventing and reinvigorating juggling for the 21st Century. Smashed is performed by seven men and two women and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by using manipulation of the forbidden fruit (apple).

Lance Moi En L'air by Joli Vyann and L'Eolienne

Joli Vyann is a company created in June 2012 by Olivia Quayle and Jan Patzke. It uses an innovative fusion of circus, dance and theatre, blurring the boundaries of where the dance ends and the circus skills begin, but also pulling the audience into an imaginative and captivating experience. *Lance Moi En L'air* which portrays the sensitivity, connection and contradiction between two people, is choreographed by Florence Caillon (L'Eolienne) with original music by Xavier Dermeriac and Florence Caillon.

Ear Trumpet by Gobbledegook Theatre

Gobbledegook Theatre makes innovative cross-artform work which has theatre at its core. *Ear Trumpet* is a playful installation, made for people of all ages inviting audiences to delight in the discovery of the secret music under one's feet.

▶ Hosted by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Foundation of Arts and Culture
▶ Organised by : Seoul Foundation of Arts and Culture



Julian Opie. Walking in Sadang-dong in the rain. 2014 © Julian Opie

줄리안 오피展

▶ 일시: 2017년 9월 28일 - 2018년 1월 21일 ▶ 장소: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 장르: 시각예술

<줄리안 오피展>은 팝아트 이후 현대 미술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영국 작가 줄리안 오피(Julian Opie)의 개인전으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개관 2주년을 기념하여 기획되었다. 오피는 대형 광고판, 일본 목판화와 만화, 고전 초상화와 조각 등에서 영감을 받고 이를 작가 특유의 축약된 형식과 현대인들에게 소통 가능한 이미지로 재해석하는 작업들을 선보여왔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사람에게 가치 중심을 두는 수원시의 슬로건 '휴먼 시티'에 맞추어 사람과 일상의 모습들을 주제로 작업해 온 오피의 작품세계를 심도 있게 조명함으로써 현대인의 이미지와 삶의 터전에 대한 조형적 해석을 선보이고자 한다.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작가와의 대화, 현대 미술과 팝아트를 주제로 한 해외 전문가 초청 강연이 진행된다.

▶ 주최/주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Julian Opie Solo Exhibition

▶ Date and time : 28 September 2017 - 21 January 2018 ▶ Venue : Suwon Ipark Museum of Art ▶ Genre : Visual Arts

Julian Opie's first public museum exhibition in Korea brings together over 80 works, many of which were made especially for Suwon Ipark Museum of Art and are shown for the first time. Spread over five galleries and extending out into the public areas of the museum - including its facade - the exhibition includes paintings, sculpture, films and temporary large-scale installations representing urban and rural sights, sounds and environments as well as the people to be found there.

Always exploring different techniques, both cutting edge and ancient, Opie plays with ways of seeing through reinterpreting the vocabulary of everyday life. His reductive style evokes both a visual and spatial experience of the world around us.

▶ Hosted and organised by : Suwon Ipark Museum of Art



© Bernhard Mueller

영국 극단 1927 <골렘>

▶ 일시 : 2017년 11월 16-19일 ▶ 장소 : LG아트센터 ▶ 장르 : 공연예술

애니메이션과 라이브 퍼포먼스를 결합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미래 연극의 모습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젊은 영국 단체 1927을 초청하여 한국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고자 한다.

<골렘(Golem)>은 극단 1927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과 라이브 음악, 퍼포먼스가 정교하게 결합된 수작으로 2014년 초연 후에 성황리에 전세계를 투어하고 있다. 구스타프 마이링크(Gustav Meyrink)의 소설 <골렘>에서 영감을 얻은 이 작품은 1927의 작가 수잔 안드레이드(Suzanne Andrade)에 의해 완전히 새롭게 쓰여졌다. 이 작품은 애니메이션과 라이브 퍼포먼스의 절묘한 조합이라는 시각적 즐거움뿐 아니라 '테크놀로지 사회에서 누가 무엇을 조정하는가?'라고 하는 21세기 현대 사회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한국 공연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리라 생각된다.

▶ 주최 : LG아트센터

Golem created by 1927

▶ Date and time : 16-19 November 2017 ▶ Venue : LG Arts Center ▶ Genre : Visual Arts

Lauded as one of the future faces of the theater by presenting works that integrate animation, film and live performance, British company 1927 is coming to Korea with its most recent hit, *Golem*.

Golem is an outstanding work of 1927, meticulously combining its specialty of animation, live music and performance. Since its premiere in 2014, the work has been on a world tour, receiving rapturous reviews. *Golem* was inspired by a novel of the same title written by Gustav Meyrink, but was completely recreated by the group's writer, Suzanne Andrade. This work not only offers visual pleasure through an impressive synthesis of animation and live performance but also raises a poignant satire on the modern world, questioning 'who controls what in this technosociety'. We are expecting to give our audiences deep and fresh impression about this performance.

This young British company 1927 consists of a peculiar combination of members, including animators, writers, pianists and actors. The group won five awards at the Edinburgh Fringe Festival in 2007 with their hit debut *Between the Devil and the Deep Blue Sea*. The second creation *The Animals & Children took to the Streets* marked a world success, followed by *Magic Flute* created together with The Komische Opera Berlin. For *Magic Flute*, 1927 replaced traditional opera stage sets with a creative and unique stage using animation, winning the 'Best Design' award at Opera World Awards.

▶ Hosted by : LG Arts Center

부산-세필드: 인터시티 아트 프로젝트

▶ 일시: 2017년 10월 ▶ 장소: 부산 영도 깡깡이예술마을 ▶ 장르: 시각예술, 문학, 건축, 디자인

공업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인 부산 영도의 '깡깡이예술마을'과 영국 세필드의 'City of Ideas'는 다양한 예술가들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도시와 예술의 새로운 관계형성을 실험하는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국제교류를 넘어 지역과 지역,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상호적인 문화예술교류 프로그램이다. 8월 사전 방문 리서치를 통해 아티스트는 영감을 얻고, 10월 중 작품을 설치한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폴 모리슨(Paul Morrison)의 벽화 프로젝트, 벤 튜(Ben Tew)의 공공장소 조명예술 설치 프로젝트 및 영도주민들의 삶을 주제로 한 그래픽노블 작가 마크 스태포드(Mark Stafford)의 단행본을 제작하는 깡깡이 오버씨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들은 10월 26일 오프닝 행사를 통해 공개되며 그 이후 영구적으로 남아 지역주민들 및 관광객들이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게 된다. 각각의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는 라운드테이블 또는 포럼으로 연계되어 공유된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았다.

▶ 주최: 깡깡이예술마을사업단 ▶ 주관: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사이트갤러리

Busan-Sheffield: Inter-City Arts Project

▶ Date and time : October 2017 ▶ Venue : KangKangee Arts Village, Busan

▶ Genre : Visual Arts, Literature, Architecture,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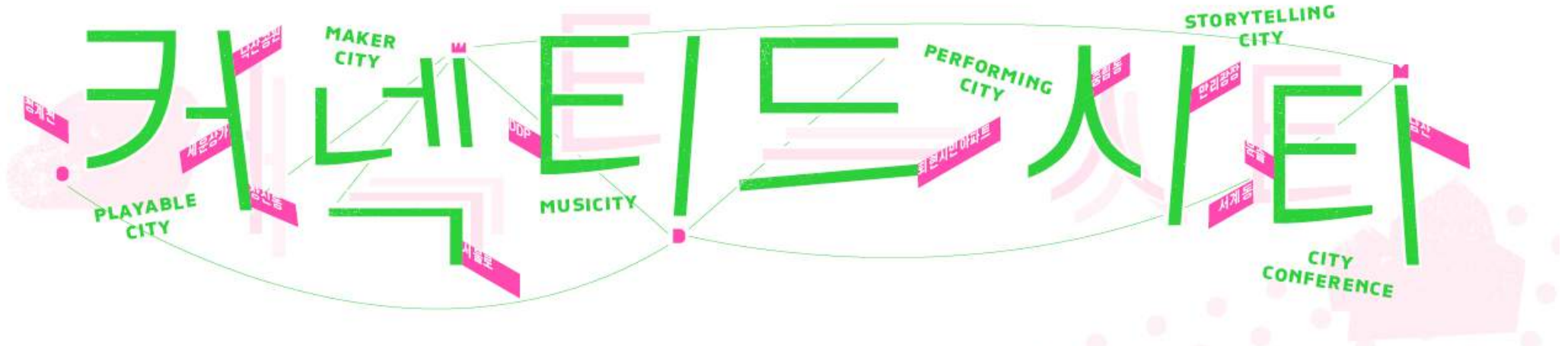
The Inter-City Arts Project connects two industrial cities, Busan and Sheffield, which are both going through an urban regeneration through creative and artistic projects. Through various exchanges and collaborations between the two cities, this project seeks to embellish each city's identity in its own unique way. Artists have a research visit in August and build/install developed ideas in October.

A mural project by Paul Morrison and a public installation (light works) project by Ben Tew aim to change the everyday life of residents, whereas a webtoon written by a British graphic novel artist, Mark Stafford, portrays the history and life of Young-do residents. All of the artworks have an opening together on 26 October and remain afterwards permanently to be enjoyed by the residents as well as visitors. Results of this project are shared and presented at a roundtable.

This project is funded by Arts Council Korea.

▶ Hosted by : KangKangee Arts Village ▶ Organised by : Creative Plan B, Site Gallery





커넥티드 시티

- ▶ 일시: 메인 프로그램 | 2017년 10월 27-29일 / 시티 컨퍼런스 | 2017년 10월 31일
- ▶ 장소: 서울역·종로·홍대입구 일대
- ▶ 장르: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음악, 건축, 디자인, 패션

커넥티드 시티는 빠른 도시의 변화를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술을 통해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도시 예술 프로젝트이다. 한국과 영국의 예술가들이 협력하여 도시 속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고, 예술과 테크놀로지가 만나 일상적이던 도시를 새롭고 다르게 보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뮤직시티

뮤직시티는 음악으로 도시의 풍경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로 한국과 영국의 일곱 명의 뮤지션들은 서울을 탐험하고 일곱 군데의 장소에서 받은 영감으로 음악을 만든다. 누구나 스마트폰에 미리 뮤직시티 앱을 다운받아 놓고 행사 장소를 방문하면, 참여 뮤지션들의 음악을 들으며 도시풍경을 새롭게 상상할 수 있다.

* 장소: 낙산공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세운상가, 회현시민아파트, 남산백범광장, 서울로7017, 청파언덕

플레이어블시티

플레이어블시티는 영국 서부 항구 도시 브리스톨의 복합예술공간 워터헤드(Watershead)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로 테크놀로지, 예술, 놀이가 결합된 창의적인 즐거움을 제시한다. 서울에서는 세운상가 일대 청계천에서 시민 참여형 도시게임(Urban Game)이 진행된다.

메이커시티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9월 2일 - 11월 5일

서울역일대도시재생활성화: 10월 27일 - 11월 5일

서울역 일대와 동대문 일대는 서울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오랜 시간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봉제, 구두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영국과 한국의 건축가, 디자이너, 시각예술가 등이 함께 지역을 탐구하며 발견된 것들을 예술 작업으로 보여준다. 메이커 시티는 창신송인 지역과 서계중립 지역에서 진행된다.

스토리텔링시티

영국 소설가 조이 길버트(Zoe Gilbert)와 한국 웹툰작가 홍석현(필명: 홍작가)은 서울을, 한국 소설가 정소연과 영국의 그래픽노블 작가 가레스 브룩스(Gareth Brookes)는 영국 브래드포드를 탐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 이야기를 발굴한다. 영국 작가의 이야기는 웹툰으로, 한국 작가의 이야기는 영국의 그래픽노블로 작업되고, 결과물은 온라인에서 소개된다. 2017 와우북페스티벌 기간인 9월 20-24 일에는 홍대 더갤러리에서 작업과정과 결과물이 전시되며 9월 22일에는 한영 작가가 함께 하는 토크도 마련되어있다.

*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와우책문화예술센터, 브래드포드문학축제

퍼포밍시티

사운드 설치 작품과 퍼포먼스가 도시의 공간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영국의 아티스트 레이 리(Ray Lee)의 신비로운 사운드를 만들어 내는 설치 조각물 <Chorus>와 뮤직시티 뮤지션과 한국 안무가의 협업, 가상의 도시를 놀이하듯 탐험하는 가상 놀이터(VR Playground), 도시 속에 숨겨진 소인국의 세상 이야기 등이 설치와 공연의 형태로 보여진다.

* <Chorus>는 잉글랜드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동기금 사업이다.

시티 컨퍼런스 - 예술과 도시

건축적, 환경적, 경제적 구조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를 예술을 통해 어떻게 새롭게 바라보고 사유할 수 있을까? 한국과 영국의 도시, 축제, 예술 전문가들이 함께 지금 이 시대의 도시와 예술을 이야기한다

▶ 주최: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 주관: 프로듀서그룹도트, 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산책,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Connected City

- ▶ Date and time : Main City programmes | 27–29 October 2017 / City Conference | 31 October 2017
- ▶ Venue : Around Seoul Station, Jongro and Hongdae
- ▶ Genre : Visual arts, Performing arts, Literature, Music, Architecture, Design, Fashion

The rapid changes of the city through architecture, environment, economic structure and community have brought enormous changes to the daily lives of humans who live in the city. And these changes in the city have developed diverse emerging themes such as urban regeneration, sustainability, creativity and intercommunity. How should the arts incorporate with ever changing circumstances in the city? What will be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arts to catalyse for present and future city and to engage communities in the city?

The Connected City aims to develop a platform to re-shape, re-explore, re-imagine and re-connect the city we live in. With the collaboration with artists, producers, curators and communities from the UK and Korea, Connected City will introduce innovative practices on ever-changing societies and public spaces in the city through various arts forms and digital technology. The Connected City programme includes Musicity, Playable City, Maker City, Storytelling City, Performing City and City Conference.

Musicity

Musicity commissions recording artists to compose original music in response to a particular aspect of their city that inspires them. These exclusive tracks are then geo-tagged to their locations throughout the city and can only be heard by visiting each location through the purpose-built app. The idea is to encourage people to explore cities architecturally, musically and experientially.

Locations: Naksan Park, DDP, Sewoon Plaza, Hoehyun Citizen Apartment, Namsan Park(Baekboem Plaza), Seoulo 7017, Cheongpa Hills

Playable City

The Playable City concept has captured the imagination of cities across the globe, offering a new way of connecting people and thinking about the city. Started in Bristol by Watershed, Playable City has expanded to places such as Lagos, Recife and Tokyo, exploring the future city with a team of local artists and creatives, generating new ideas rooted in the specific city environment. Over three days in Seoul, Playable City invites the public to a suite of specially made 'urban games' that take place along and surrounding the Cheonggyecheon stream near Sewoon Plaza.

Maker City

Changsin-dong (2 September – 5 November): Project Seoul Apparel, a residency and exhibition project, identifies the urgent issues facing the declining garment manufacturing businesses of the Changsin-dong area of Seoul through collaboration between UK and Korean architects and fashion designers.

Seogye-dong (27 October – 5 November): The Maker City residency and exhibition project builds on these themes and considers the role of community engagement and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of a productive city. Working with the Urban Regeneration Center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rchitects from Studio NEON undertake a four-week residency in the Seoul Station manufacturing district to explore urban regeneration challenges in the area through artistic collaboration and exchange between local makers and artists and community engagement.



Storytelling City

Storytelling City project pairs UK and Korean writers and webtoon artist/graphic novelist together in order for them to work closely on the production of new creative works of writing and graphic novel/webtoon. The collaborations take place over a series of visits to both Korea and the UK and both the process and the final outcomes are showcased at the Wow Book Festival this year and Bradford Literature Festival next year, and online in the two countries.

* This project is funded primarily by Arts Council Korea and the British Council and organised by Bradford Literature Festival in the UK and Wow Book Culture and Art Centre in Korea.

Performing City

Through Performing City various works such as *Chorus*, a collective of monumental and transfixing sound sculptures by sound artist Ray Lee, a collaborative performance by UK musician from Musicity and Korean choreographer, Small Wonder Tour, a tour of microscopic world and VR Playground, an immersive installation by Brendan Walker are introduced.

* *Chorus* is a part of Arts Council Korea and Arts Council England Joint Fund project.

City Conference

The rapid changes of the city through architecture, environment, economic structure and community have brought enormous changes to the daily lives of humans in the city. How should arts incorporate these ever-changing circumstances in the city? Through this conference, new relationships within places, arts, technology and communities in the city are introduced and discussed.

- ▶ Hosted by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Seoul Design Foundation
- ▶ Organised by : Producer Group Dot, Urban Regeneration Centre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Walk and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리버풀FC와 함께하는 축구교실

▶ 일시: 2017년 11월 4일 09.00-17.00 ▶ 장소: 달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 ▶ 장르: 스포츠

SC제일은행은 리버풀 FC (이하 "리버풀") 와 함께 하는 영어축구스쿨을 개최한다. SC제일은행의 모기업 스탠다드차타드그룹이 공식 후원하는 영국 리버풀 FC를 통해 EPL (English Premier League) 축구가 영국문화의 소중한 일부임을 소개한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리버풀 레전드와 아카데미 코치 등이 한국을 방문하여 영국축구 체험 행사를 펼친다. 리버풀 아카데미 코치진의 짜임새 있는 영어축구스쿨, 리버풀 레전드와의 특별한 만남 및 기념 촬영의 기회를 제공하여 축구 꿈나무들에게 색다른 인생 경험과 추억을 선사한다.

리버풀FC는 영국축구의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을 가진 EPL의 명문 구단으로, 통산 우승 잉글랜드 1부 리그 18회, UEFA챔피언스리그 5회의 성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 UEFA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우승경기인 '이스탄불의 기적'으로 유명하다. 전세계적으로 7억7천7백만여 명의 팬을 보유하고 있는 등 영국은 물론 전세계 팬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리버풀FC에는 이안 러시, 스티븐 제라드 등 수 많은 레전드들이 있다.

▶ 주최/주관: SC제일은행, 리버풀FC

Football School with Liverpool FC

▶ Date and time : 9.00-17.00, 4 November 2017 ▶ Venue : Dulwich College Seoul ▶ Genre : Sports

Standard Chartered Bank Korea presents an English Football School with Liverpool FC ("LFC"), introducing the English Premier League (EPL) as an essential part of the British culture. LFC is officially sponsored by Standard Chartered Group, the parent of Standard Chartered Bank Korea. For this programme, a small group of LFC legends and Academy coaches visit Korea and provide an opportunity for young Korean kids to experience English football. The programme presents English Football School, special Meet and Greet sessions with LFC legends and photo opportunities, thereby giving very unique life-time experiences and memories to the young children with a great affection for football.

LFC, a prestigious English Premier League football club with history and tradition, has won the League title 18 times and European Cup/UEFA Champions League titles five times. It is particularly known for the 'Miracle of Istanbul', its famous 2005 UEFA Champions league final win. The club has a strong global fan base with around 777 million fans in the UK and across the world. It boasts many legends including Ian Rush and Steven Gerrard.

▶ Hosted and organised by : Standard Chartered Bank Korea, Liverpool FC





제19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 일시: 2017년10월 20-24일 ▶ 장소: 한국만화박물관, CGV부천, 부천시청, 메가박스코엑스 ▶ 장르: 영화

경기도 부천에서 열리는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은 애니메이션 장르 본연의 매력을 전파하는 영화제로 1999년부터 매해 개최되고 아시아 지역 전문 애니메이션 페스티벌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로 제19회를 맞이한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은 장편, 단편, 학생, TV&커미션드, 온라인으로 구성된 국제 경쟁부문과 함께 최신 화제작을 모은 초청 장편과 특별전을 포함한 150여 편 내외의 애니메이션 작품을 선보인다. 애니메이션 소개와 더불어 다양한 교육, 부대행사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업계의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19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는 로저 메인우드의 <윌레스와 그로밋: 양털도둑>, 닉 파크의 <에델과 어니스트>를 비롯하여 총 14편의 영국 작품이 소개된다.

▶ 주최: (사)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조직위원회 ▶ 주관: BIAF집행위원회, (사)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The 19th Bucheon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 Date and time : 20-24 October 2017

▶ Venue : Korea Manhwa Museum, CGV Bucheon, Bucheon City Hall, Megabox Coex ▶ Genre : Film

Based in Bucheon on the outskirts of Seoul, Bucheon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BIAF) was established in 1999. In its 19th Edition, BIAF 2017 is composed of an animation film festival with over 150 films including competitions for Best International Film, Best Feature, Best Short, Best Commissioned, and Best Online. The festival aims to highlight the ways that cartoons and animation can help develop creativity across the world.

This year, BIAF presents 14 UK animations including *Ethel & Ernest* (2016) by Roger Mainwood and *A Close Shave* (1995) by Nick Park.

▶ Hosted by : BIAF Organizing Committee

▶ Organised by : BIAF Executive Committee, The Korean Society of Cartoon & Animation Studies

2017 서울프라이드영화제: 영국 포커스

▶ 일시 : 2017년 11월 2-8일 ▶ 장소 :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 장르 : 영화

2017년은 영국에서 동성애 금지법이 부분적으로 해제되는 계기가 된 성범죄법 제정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해 서울프라이드영화제는 BFI 플래어(BFI Flare)와 협력하여 2017 서울프라이드영화제 영국 포커스 프로그램으로 '플레이 필름: 영국 퀴어영화 단편선'과 '50LGBT'를 선보이며 17년 동안 영국영화협회(BFI)에서 근무해온 BFI 플래어의 수석프로그래머 브라이언 로빈슨(Brian Robinson)을 초청하여 다양한 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플레이 필름: 영국 퀴어영화 단편선

영국문화원과 영국영화협회(British Film Institute)의 세계 최초 온라인 퀴어 영화제인 FiveFilms4Freedom은 현재까지 약 180개국에서 157만 명이 시청하며,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왔다. 올해 서울프라이드영화제에서는 FiveFilms4Freedom의 단편영화 중 아홉편을 선정하여 장편 분량의 컴필레이션 영화로 선보인다. 서울프라이드영화제 종료 후에는 강릉, 대구, 전주, 부산에서의 소규모 상영도 진행한다.

50LGBT

영국문화원은 영국에서 성범죄법 개정이 된 지 50주년이 되는 올해를 주목하기 위해, 서울프라이드영화제, BFI 플래어와 협력하여, 인권과 한국 내 반향을 살펴보는 특별전 50LGBT를 소개한다.

50LGBT에서는 존 솔레지저 감독의 <사랑의 여로> (1971), 스티븐 프리어스 감독의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 (1985), 데릭 처먼 감독의 <에드워드 2세> (1991), 샘리 포터 감독의 <올랜도> (1992) 등 영국의 대표적인 클래식 LGBT영화들과 함께, 2017년 개봉작인 <어게인스트 더 로(Against The Law)>를 국내 최초로 상영한다.

▶ 주최 : 프라이드 리퍼블릭, 서울LGBT아카이브, (사)신나는센터 ▶ 주관 : 서울프라이드영화제 집행위원회

UK Focus at Seoul Pride Film Festival 2017

▶ Date and time : 2-8 November 2017 ▶ Venue : CGV Myeongdong Station Cine Library ▶ Genre : Film

In partnership with BFI Flare, Seoul Pride Film Festival presents 'Flare Films: UK LGBT shorts', '50LGBT' and various talk programmes with Brian Robinson.

Flare Films: UK LGBT shorts

This is a programme of recent shorts from the UK. It follows the success of the British Council and BFI's *FiveFilms4Freedom* online project, through which people in 179 countries watched films from BFI Flare, with 1.57 million views this year.

50LGBT

Seoul Pride Film Festival devotes a special section of their programme to mark the 50th anniversary of the partial decriminalisation of homosexuality in the UK – a landmark moment for human rights and a theme that resonates in Korea. The 50LGBT strand includes *Against the Law*, a powerful factual drama about Peter Wildeblood, a gay journalist whose conviction in 1954 led to an enquiry resulting in the Wolfenden Report, to which Wildeblood gave evidence, and which in 1957 recommended the decriminalisation of homosexuality in the UK. We also screen *Sunday, Bloody Sunday* (John Schlesinger, 1971), *My Beautiful Laundrette* (Stephen Frears, 1985), *Edward II* (Derek Jarman, 1991) and *Orlando* (Sally Potter, 1992).

▶ Hosted by : PRIDE Republic, Seoul LGBT Archive, Sinnaneun Center ▶ Organised by : Seoul Pride Film Festival

<리처드 해밀턴: 연속적 강박>전

▶ 일시: 2017년 11월 3일 - 2018년 1월 21일 ▶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제1전시실 ▶ 장르: 시각예술

<리처드 해밀턴: 연속적 강박>전은 한국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리처드 해밀턴의 개인전이다. 2011년 작가가 타계한 이후 영국 테이트 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통해 작품 세계가 재조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그의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드물었다. 1922년 런던에서 출생한 리처드 해밀턴은 20세기 중반 이후 새로운 관념과 시각으로 현대 사회를 바라보고 이를 시각적으로 재해석해 낸 영국을 대표하는 예술가 중 한 사람이다. 작가는 현대 사회의 대량 생산 이미지에 매료되었고 인간의 소비, 욕망의 생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미지의 재생산과 그것의 작동 방식에 주목하였다.

이번 전시는 리처드 해밀턴의 총체적인 작업에 대한 서사적이며 전형적인 회고전이기 보다는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60년의 시간에 대해 일종의 클로즈업과 같이 작가의 특정 작품군 또는 연작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가정용 전자제품에서 꽃, 그리고 팝스타와 정치범까지 작품의 소재와 주제는 광범위하지만 여기에 선별된 연작들은 작가가 강박에 가깝게 천착해 온 주제에 대한 반복과 재해석이라는 방식으로 축적된 '복합적인 장치'를 통해 해밀턴 작업의 거듭되는 특징들을 볼 수 있게 한다. 이번 전시는 현대사회의 비판적 관찰자이며 참여자로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확장해 온 리처드 해밀턴의 다층적인 작업세계를 보다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주최/주관: 국립현대미술관



Swinging London 67 (f), 1968-69, Acrylic paint, screenprint, paper, aluminium and metalised acetate on canvas, 67 x 85 cm, Tate, Purchased 1969



She, 1958-61, Oil paint, cellulose nitrate paint, paper and plastic on wood, 122 x 81 cm, Tate, Purchased 1970

Richard Hamilton: Serial Obsessions

▶ Date and time : 3 November 2017 – 21 January 2018
▶ Venue : Gallery 1, Gwacheo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 Genre : Visual Arts

Richard Hamilton was amongst the first generation of post-war artists whose work drew on a new kind of image world to produce a new kind of picture. Hamilton was fascinated both by the ubiquity of the mass-produced image in modern life and the way it operated to construct expectation, consumption and desire. By the 1950s, the decade in which Hamilton emerged as a highly reflective artist and thinker, mechanical reproduction had gone into overdrive. Images were everywhere, in magazines, on billboards and television. Increasingly they were in colour too. Hamilton immersed himself in this image world as a participant whilst keeping sufficient distance to be a critical observer.

From countless possibilities in this image world, Hamilton selected a few very particular images, each for a very particular reason. The sources are varied and include a pop star, a toaster, a political prisoner. Throughout a long career, from the 1950s through the first decade of the 21st century Hamilton's work on the image always involved prolonged study over a long period of time, which then led to a group of studies or an extended series.

▶ Hosted and organised by :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43

메이드인코리아

▶ 일시 : 2017년 11월 4-12일 ▶ 장소 : 문래 예술 공장 ▶ 장르 : 시각예술, 영화, 음악, 공예

<메이드인코리아>는 영국과 한국이라는 두 국가, 세라믹 공예와 사운드 아트라는 두 가지 대조적인 분야 간의 문화 교류 프로젝트이다. 20명의 국내 아티스트와 다섯 명의 영국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2017년 한 해 동안 브라이튼, 런던, 스토크 온 트레نت 및 서울에서 진행된다.

도예가인 케이 애플린(Kay Aplin, The Ceramic House)과 사운드 아티스트 조셉 영(Joseph Young)이 기획한 이번 프로젝트는 영국과 한국의 현대 도자기와 사운드 아트를 통해 두 개의 대조되는 학문과 독특한 문화 사이에서의 대화와 교류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문래 예술 공장과의 협력을 통해 현대 미술과 새로운 음악 관객을 동시에 목표로 삼는다.

한국 도자기 공예로부터 영감을 받은 케이 애플린의 세라믹 타일 전시는 조셉 영(영국), 류한길(한국), 최세희(한국)의 개막 공연과 함께 11월 4일 문래 예술 공장에서 열린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다큐멘터리와 양국의 사운드 아티스트가 선보이는 음향 작품 또한 소개된다. 사운드 아트와 세라믹 공예 사이의 연결고리를 탐색하는 이 음향 작품들은 애플과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 정보 기반 앱인 에코스(Echoes)를 통해 소개된다.

이 프로그램은 잉글랜드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았다.

▶ 주최 : 문래 예술 공장 ▶ 주관 : The Ceramic House, In Camera Gallery (협력 큐레이터 : 류한길)



Kay Aplin, 'Pavilion #2'.
Porcelain with celadon glaze.
Each tile 12cm diameter. 2017. Photo: Bernard G Mills

Made in Korea

▶ Date and time : 4-12 November 2017 ▶ Venue : Mullae Arts Factory ▶ Genre : Visual Arts, Film, Music, Craft

Made in Korea is a cultural exchange project between two contrasting nations, the UK and Korea, and two contrasting disciplines, ceramics and sound art. Involving 20 artists from Korea and five from the UK, the project evolves throughout 2017 in Brighton, London, Stoke-on-Trent and Seoul.

Curated by ceramist Kay Aplin (The Ceramic House) and sound artist Joseph Young, the show presents high-quality contemporary ceramics and sound art from the UK and Korea to uncover a dialogue between two unique making cultures. Our partnership with Mullae Arts Factory in Seoul offers a chance to target contemporary art and new music audiences at the same time.

An exhibition of Kay Aplin's roof tiles, inspired by Korean ceramics, launches with a performance of Joseph Young (UK), Hankil Ryu (Korea) and Sehee Choi (Korea) at Mullae Arts Factory on 4 November. In addition, a specially commissioned documentary film about the project is unveiled. Audio commissions, which explore the connections between sound and ceramic practices, are hosted on the geo-locative Echoes platform available on both iOS and Android devices.

This programme is funded by Arts Council England.

▶ Hosted by : Mullae Arts Factory

▶ Organised by : The Ceramic House and In Camera Gallery; in association with Hankil Ryu



My-Point-Forward-Blast Theory - Photo Credit Blast Theory

<당신이 시작하라!> 블라스트 씨어리 개인전

▶ 일시 : 2017년 11월 23일 - 2018년 3월 4일 ▶ 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 장르 : 시각예술

백남준아트센터는 2016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수상자로 영국의 미디어 그룹 블라스트 씨어리(Blast Theory)를 선정하였다. 1991년 영국에서 결성된 미디어 그룹 블라스트 씨어리는 연극, 라디오, 게임, 웹 등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한 인터랙티브 작업을 통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블라스트 씨어리의 예술적 주제는 미래를 사유하는 예술가의 역할, 관객 참여적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와 인간의 공생이라는 주제적 측면에서 백남준의 예술적 정신과 맞닿아 있다. 블라스트 씨어리의 국내 첫 개인전 <당신이 시작하라!>는 그들의 예술적인 뿌리와 미래적인 지향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주최 :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문화재단

You Start It!

▶ Date and time : 23 November 2017 - 4 March 2018 ▶ Venue : Nam June Paik Art Centre ▶ Genre : Visual Arts

Nam June Paik Art Centre presents the first solo exhibition in Korea by the 2016 Nam June Paik Art Centre Prize winner Blast Theory. The exhibition, titled *You Start It!*, features new and recent works by Blast Theory from 23 November 2017 to 4 March 2018.

Blast Theory, the British media artists' group working with new types of media explored by Paik, not only deals with themes of futuristic thinking around media-human relationships and spectator participation, but also expands the possibilities of media by combining and integrating several different media with its experimenting spirit. Nam June Paik Art Centre provides new opportunities for Korean audiences to imagine the future through the exhibition.

▶ Hosted by : Nam June Paik Art Centr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2017 한영 창의적인 고령화 컨퍼런스

▶ 일시 : 2017년 12월 5-6일 ▶ 장소 :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 장르 : 예술, 교육

한국과 영국은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공통의 사회적 이슈와 도전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주제로 <2017 한영 창의적인 고령화 컨퍼런스>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예술이 가지는 역할에 대해 양국 간의 지식교류를 확대하고, 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 및 협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영 정책입안자,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끄는 예술의 역할을 검토하는 동시에 양국의 사례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한다. 또한 창의적인 고령화 지원 및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성과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세대간 교류, 고령자 대상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에의 다원적 접근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하고, 더불어 예술이 보건의료분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촉진하고자 한다.

12월에는 영국에서 열 명의 예술, 문화, 교육 기관 대표자 및 전문가들이 한국에 방문하여 한국의 전문가들과 컨퍼런스 및 워크숍을 진행한다. 2018년에는 한국 전문가들이 영국에 방문하여 상호 배움의 기회를 갖고 지속적인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여, 양국간 예술과 고령화 사회의 공통 과제 및 창의적 사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은 배링 파운데이션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을 받았다.

Creative Ageing Conference 2017 Korea

▶ Date and time : 5-6 December 2017 ▶ Venue : Seoul 50 Plus West Campu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 Genre : Arts, Education

Creative Ageing Conference 2017 provides a platform where we can build bridges for exchange of knowledge, networks and collaboration in order to reflect on the role of arts within the fast-ageing societies of the UK and Korea.

The full day conference, followed by workshops and a research visit, aims to bring both policy makers and artists and art professionals together to examine the critical role of the arts to create positive social change and to share best creative practi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also aims to stimulate discussions on common challenges, such as intergener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practices, professional capacity building opportunities, and the arts and its contribution to the health sector.

In December 2017, delegates from the UK representing arts, culture and education sector visit Korea to participate in a conference and workshops with Korean delegates. In 2018, Korean delegates have their research visit to the UK. This reciprocal research visit aims to further the dialogue around arts, the ageing agenda and its creative practices by exchanging knowledge and building sustainable partnerships.

This programme is funded by The Baring Foundation and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46



페스티벌 아름답다름 : 아름다운 다름

Festival
Arts and Disability:
**Beautiful
Differences**

2018. 3.9 – 3.23

페스티벌 아름답다름: 아름다운 다름

- ▶ 일시 : 2018년 3월 9-23일 ▶ 장소 : 아코예술극장,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
- ▶ 장르 : 시각예술, 공연예술, 교육

예술이 보다 포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예술과 장애에 관한 혁신적 접근 방식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굿모닝 에브리바디: 칸두코 댄스 컴퍼니 - 안은미 무용신작

한국을 대표하는 안무가이자 무용수인 안은미와 장애인 무용수와 비장애인 무용수로 이루어진 세계적인 영국의 무용단 칸두코 댄스 컴퍼니의 협업작업이 세계 초연으로 선보여지며 평창 문화올림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 공연에서는 저시력 장애인들을 초청하여 삼성전자의 시각 보조 애플리케이션 '릴루미노'를 설치한 기어 VR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혼·Zero: 마크 브루 - 김보라 무용신작

영국의 장애인 안무가이자 무용수 마크 브루와 한국의 안무가 김보라의 콜라보레이션 신작으로 두 차례에 걸친 리허설 작업을 통해 완성된 두 안무가의 듀엣이 아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프리미어 무대를 선보인다. 이 공연은 시각장애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공연 상황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오디오 디스크립션(Audio Description)서비스가 지원된다.

춤을 추는 천백만 가지 이유: 장애예술 사진전

2014년 피플댄싱재단의 기획으로 탄생한 전시로 시청각 및 신체장애를 가진 무용수들이 전 세계에서 널리 사랑받는 영화의 한 등장인물로 연출한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낸다. 장애 무용수들을 향한 차별을 금지하는 동시에 장애에 대한 인식변화를 추구한다.

싱크 코리아 Sync Korea: 장애예술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싱크(Sync)는 장애예술가 및 장애예술 기획자들이 그룹 워크샵, 개인 코칭을 통해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이다. 2012년 런던올림픽 준비 기간 중 사라 픽스탈과 조 베런트, 두 명의 장애예술가이자 기획자인 두 명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지금까지 영국과 호주에서 백 명이 넘는 장애예술가 및 장애예술 기획자들이 참가했다.

- ▶ 주최 : 영국문화원
- ▶ 협력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Festival Arts and Disability: Beautiful Differences

- ▶ Date and time : 9-23 March 2018 ▶ Venue : ARKO Arts Theater, Korea Disability Arts & Culture Center IEUM
- ▶ Genre : Visual Arts, Performing Arts, Education

The festival explores the role of arts for more inclusive and diverse society and focuses innovative approaches on arts and disability.

'Good Morning Everybody' by Eun-Me Ahn and Candoco Dance Company

New dance performance by Candoco Dance Company and Eun-Me Ahn. The collaboration between one of the UK's best-known dance company and Korea's representative choreographer and dancer marks the finale of UK/Korea 2017-18. To be presented in Seoul in March 2018, the performance is also part of the 2018 PyeongChang Cultural Olympiad. The people with low vision will be provided the Gear VR which 'Relúmino', a visual aid application installed.

'공·혼·Zero: Restriction, Body and Time' by Marc Brew and Bora Kim

Collaboration between Artistic Director and choreographer Marc Brew and his Korean counterpart Bora Kim. The two choreographers rehearsed the performance in September 2017 and February 2018 to complete the duet, which is to be premiered at the ARKO Arts Theater in Seoul in March 2018. In particular, the performance will provide audio description for visually impaired audience.

11 Million Reasons to Dance

Conceptualised by People Dancing in 2014 to positively profile Deaf and disabled people in dance activity in the UK. The project developed from a core vision to de-segregate Deaf and disabled people, and to help facilitate a change in perceptions that can surround those who participate in dance.

Sync Korea

Sync was first developed by two disabled pioneers from the UK; Sarah Pickthall and Jo Verrent during the London 2012. Through intensive face to face programmes, it has supported many of the leading disabled artists and arts managers in the UK and Australia to progress their arts careers further than they thought possible. For Sync Korea, it had tailored the programme to best suit the selected participants who had applied in January 2018. With two mentors, it aims to help Korea's disabled artist and producers to forge a career and a fulfilling future as pioneers in the arts.

- ▶ Hosted by : British Council in Korea
- ▶ In Partnership with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rts Council Korea, Korea Disability Arts & Culture Center